#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형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오늘의 인생들은 저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어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역사 세계에 회복시키는 새로운 역사의 계승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잠언 22장 8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44호 2013년 8월 3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어린이를 후원하라!

## CT, 경제학자가 밝히는 아동후원의 놀라운 효과 보도

미국 가정 냉장고에 붙여놓은 흔히 볼 수 있는 아프리카나 아시아권의 결연아동사진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한 달에 작게는 20달러에서 100달러가 되지 않는 도움으로 기본적인 생활 및 교육조차 보장되지 않는 빈곤 국가 아동들을 중심으로 결연 프로그램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후원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인격과 삶이 변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아동들은 일대일 결연 후원자를 만나 한 가족이 되고 사랑을 받고 꿈을 펼쳐감으로써 가정과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희망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동결연단체인 컴패션은 대표적인 국제단체로 현재 26개국 110만 명의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기독교정신에 기반을 두고 기독교적인 양육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컴패션이나 다른 결연아동단체들을 통해 후원자들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가장 의미있는 인연을 맺고, 한 아이의 인생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최근 커버스토리로 실제로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국제 문제를 가르치는 브루스 위딕(Bruce Wydick)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그 영향력과 효과를 보도한다(Want to Change the World? Sponsor a Child: A top economist shares the astounding news about that little picture hanging on your refrigerator).

"저 같은 보통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파티나 사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개발경제학자(development economist)임을 알면 흔히 이런 질문을 한다(그렇다. 경제학자들도 이런 모임에 참석한다).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받으면 늘 똑같은 대답을 했다. "아이를 후원해보면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대답한 데는 까닭이 있다. 나 자신이 한 아이를 후원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해 뭘 좀 안다면, 나처럼 하라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아동후원은 일리가 있다. 다시 말해, 아동 후원은 성인이 아니라 아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난의 싹을 애초에 잘라버리고, 개발도상국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몇몇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을 영적으로 안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반사적으로 대답한다는 게 도무지 마땅치 않았다. 사실 나는 아동 후원 프로그램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손톱만큼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900만 명의 아동들이 후원을 받고, 보통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며 주머니를 풀어 후원단체에 기부하는 돈이 매년 50억 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그 영향이나 성공 여부 측정을 위한 연구에 기꺼이 협조할 아동후원단체를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연구결과, 아동후원 프로그램이 뾰족한 효과가 없다고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연구에 협조하는 아동후원단체는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빈곤국의 아동후원으로 선교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바로 컴패션(Compassion International)이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를 시작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붙었다. 컴패션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단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었다. 어느 학술지에 발표하든 컴패션을 지칭할 때는 "선도적인 아동후원단체"라고만 언급했다.

컴패션은 후원 아동의 연령을 12세 이하로 규정한다. 먼저 우리 팀은 2008년 여름을 우간다에서 보내면서 809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그중 188명은 어릴 때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결과는 놀랍게도 후원아동이 확연히 교육을 더 많이 받았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아동후원이 교육에 매우 크고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간다라는 특정 지역에서만의 연구를 객관화시키기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여러 단체와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을 세워 우간다, 과테말라, 필리핀, 인도, 케냐, 볼리비아가 선정했다. 세 대륙에서 개발도상국을 각각 둘씩 선정한 것이다.

나머지 다섯 나라를 연구했더니 컴패션이 우간다에서 펼친 아동후원 프로그램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우간다를 비롯한 여섯 나라에서 아동후원은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후원 아동들이 중등교육을 마친 비율이 27-40% 더 높았고, 대학 교육을 마친 비율은 50-80%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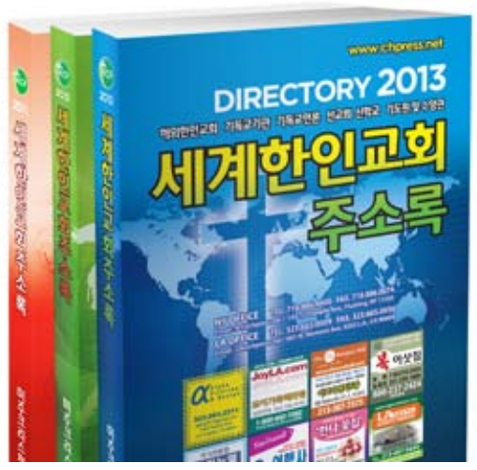
아동후원은 교육 평등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하라 사막 아래 지역에서는 아동후원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인도와 필리핀처럼 현재 졸업 비율이 그리 낮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아동후원의 영향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었다. 남자아이들의 졸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에서는 아동후원이 여자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3면으로 계속〉


**사 고**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4년도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에 들어갔다.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정보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리스팅 작업 마감 9월말 , 광고 10월초 마감**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2면
'하나님 신앙' 벗어나는 것이 자유 아니다!

3면
세계 극빈층 구제 괄목할만한 성과!

7면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안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13면
방지일 칼럼
"본대로 들은 대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 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3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 | | | |
|---|---|---|---|
| 대학부 | 신 학 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 선교학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 | | |
|---|---|---|---|
| 대학원 | 목 회 학 석사 |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기독교교육학 석사 |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선 교 학 석사 |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여교역학과 | | 3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제 출 서 류 ◇**

❶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❷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❸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❹ 신앙고백서 1부
❺ 명함판 사진(2"×2") 2매
❻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❶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❷ 원서접수마감 : 2013년 9월 6일(금) 오후6시
❸ 입 학 시 험 : 2013년 9월 7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❹ 영 성 훈 련 : 2013년 9월 9일(월) – 11일(수) 저녁 8시
❺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 시 론

# 고독한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지난 달 우리교회 사역자 가족들이 샌디에고를 여행하였다. 해마다 사역자수련회를 계획하고 실행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였기에 아쉽게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기회가 마련되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내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사역자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게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샌디에고에서 오래 사신 분의 덕택에 그 지역의 명소들을 직접 찾아보고 그곳과 관련된 히스토리까지 알게 되었기에 더욱 유익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은 솔레다드 마운틴(Soledad Mt.)의 십자가였다. 10m가 훨씬 넘어보이는 십자가 밑에 서서 샌디에고 시내의 거의 전 지역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십자가 주변에는 암각사진으로 전몰병사들의 사진과 약력들이 담겨져 있었다. 그들은 대개 한국전쟁을 위시하여 1,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 등 각종 전쟁에 참여한 분들이다. 아름다운 풍광만큼이나 십자가가 주는 영적인 도전과 의미가 커서 십자가 밑에 서니 자연스럽게 주님과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그 십자가의 수난사를 들으면서 도전이 되었다.

1913년에 샌디에고 지역의 경건한 사람들은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솔레다드 마운틴에 십자가 신앙이 늘 기억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나무십자가를 세웠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십자가는 도난당하고 말았다. 아마도 누군가 십자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이에 의해 십자가는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1923년에 다시 십자가를 세웠는데 수년이 흐른 뒤 이번에는 강풍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하여 1934년에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날아가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십자가를 세웠다. 하지만 십자가는 끊임없이 시련을 당해야만 했다. 1986년부터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기 싫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고역이라고, 미국과 같이 종교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십자가를 세워놔서 그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은 엄연한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소송을 걸었다. 무려 8차례나! 그래서 그 십자가는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없어질 위기를 당하였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전몰장병기념사업을 함께 벌이면서 십자가를 없애자는 분위기가 얼마간 수그러들었지만 십자가의 장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집에 와서 스패니시로' 솔레다드'란 단어는 고독(solitude)이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고독한 산의 고독한 운명의 십자가! 십자가는 고독이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고독하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자기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기도 싫어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끔찍하게 여긴다. 다만 장식용으로 목이나 귀에 걸며 만족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기다. 그러나 고독한 십자가는 곧 빛나는 영광으로 이어진다. 십자가가 있기에 면류관도 있는 것이다!(Yes Cross, Yes Crown).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셨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지난주에 만난 내 친구 선교사는 나와 함께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다. 내가 선교지를 떠난 후에도 그는 무명으로 선교사역을 위해 조용히 헌신하였다. 그야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가 사는 오지의 영혼들의 제자화만을 꿈꾸며 헌신한 형제다. 그가 쓰는 편지는 언제나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이니 그가 맺는 사역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뿐이다. 은사도 많고 인격도 훌륭하고 여러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어서 교회들의 청빙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도 끝내 선교만이 자신의 갈 길이라고 물러설 줄 모르는 그는 고독한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자다. 그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외로운 십자가를 지고 전진하는 이들 때문에 이나마 한국교회가 명맥을 유지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거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표류하고 있는 이유 역시 고독한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힘든 마음이 몰려들었다.

솔레다드 마운틴을 내려와서 들른 곳이 포인트 로마 지역에 있는 샌디에고 국립묘지(Fort Rosecrans National Cemetery)였다. 수십만 평은 됨직한 샌디에고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일직선상으로 서있는 수십만 개의 대리석 비석들이 전몰군인들의 희생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과거에 그들이 희생했기에 현재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고독한 십자가가 있어야 다음 세대에 희망이 존재한다. 고독한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 '하나님 신앙' 벗어나는 것이 자유 아니다!

## CMS, 금지 50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기도와 신앙표현현장 소개(2)

크리스천운동선수모임(The 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 FCA)은 공립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는 가장 큰 모임이다. FCA 역시 학생들이 주도하는 단체로, 크리스천 코치들은 대부분 교직원으로 분류된다. 교직원으로 분류되는 이상 성경적 가르침을 곧바로 전하는 것은 한정되지만 게임에 나가기 전에 같이 둥그렇게 모여 기도하는 것은 인정됐다.

따라서 크리스천들로만 FCA에 모이는 것을 확대시켜 누구나 기도나 성경적 가르침이 필요한 학생들을 모으고 있다.

결국 연방 수정헌법 1조항 전문학자인 하인스(Haynes)는 종교와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그는 학교 밖에서 온 멘토나 코치의 충고나 조언을 받는 것은 비록 교회공동체나 선교 단체에서 온 코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준다.

공립학교에서 기도나 종교의 가치를 선포하는 부모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한마디로 학교를 미션 사역지로 생각한다. 비록 사법부의 법 해석에 따라 종교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금지됐기는 하나, 아이들이 14세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종교적 개종이라기보다는 미국 사회라는 다양한 가치와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내 것만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기독교적 가치를 심고 있다.

이러한 선교단체들로는 현재 F2F(Friend2Friend)가 학교에서 다른 신앙이나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즉 "나누고-기도하며-발견한다(Share-Pray-Discover)"라는 슬로건으로 크리스천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한편 이처럼 종교적 가르침이 실제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정체성 확립이나 사춘기 성격발달에 도움이 되자, "종교적 문맹을 만들지 말자"라는 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모데스토(Modesto)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획기적인 교과편성을 실시해, 단순히 종교적 문맹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가치관 공존에서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모데스토는 히스패닉이 대부분이고 여기에 복음주의적 크리스천, 인도, 불교도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들이 서로 어울려 살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로, 캘리포니아 중앙교육구는 공립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세계종교"를 듣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9.11사태나 최근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과 같이 미묘하고 민감한 종교적 긴장감 속에서도 모데스코 고등학교나 커뮤니티는 무슬림 커뮤니티에 어떠한 적대감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됐다.

뉴욕의 뉴욕타운센드해리스 고등학교 역시 9학년 학생들은 종교들에 관해 배우는 것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세계사 선행과목(Advanced Placement)이 됐다. 한마디로, 같은 시기에 다신교가 발전한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일신론이 기독교라는 형태로 발전되게 됐는지를 학생들이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1963년 연방대법원 판례

대로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허용되지만 종교가 요구하는 신앙을 가르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타운센드해리스 고등학교 역사교사 스카디노(F Scardino)는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헌법학자들 역시 모든 미국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그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이 더 나은 미국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요약하자면 1963년 미연방 최고법원에서 종교자유법을 개정해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은 타종교를 갖는 청소년들에게 일률적으로 기도하게 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그 이후, 각종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기도모임형태도 금지됐다. 그러나 진보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진 이후 미국은 급격한 문화타락의 길로 걷게 됐다.

실례로 많은 청소년들이 윤리적인 울타리를 뛰어 넘어 걷잡을 수 없이 타락했다는 것이 미국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성에 대한 관념 역시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이라는 차원을 떠나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콘돔을 나눠줄 정도가 됐다. 이는 "마치 도둑질은 하되 들키지는 말라"는 식의 교육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교실에서 빼앗겨버린 기도를 되찾아 폭력과 섹스와 마약에 취한 젊은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아졌다.

나아가 미 대법원은 20년 전부터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종교적 기도를 금지하는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사안이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미래 생존문제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다.

이 논쟁은 이번 달 리버티고등학교 졸업생 대표였던 로이 코스트너 4세가 학교 당국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은 졸업식 연설문 낭독 도중 주기도문을 외우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더욱 달아올랐다.

〈3면으로 계속〉

# 37개 주 460교육구에서 성경교사 채용해 성경 가르쳐

## 기독단체들, 더불어 살아가는 기독교적 가치심기 교육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세계 극빈층 구제 괄목할만한 성과!

## 이코노미스트, 밀레니엄 개발목표 따라 빈곤층 감소현상 보도

1949년 미국의 트루만(Harry Truman)은 자신의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지식과 기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비록 트루만 대통령의 이러한 희망이 실현되는 데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 인류는 극빈층(extreme poverty)을 구제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지난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세계의 극빈층이 절반 정도가 줄었는데,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43%에서 21%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의 삶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세계 인구 70억 명 중 11억 명이 극빈층의 국제적 기준인 하루 생활비 1.25달러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국제단체의 지도자들은 지난 2000년에 세운 빈곤층 감소 목표인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대신할 새 목표를 의논하기 위해 모였는데, 새 목표는 2030년까지 세계의 절대 빈곤계층을 다시 10억 명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빈민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하루 생계비 63달러이며, 신흥 개발도상국 중 부유한 나라들의 빈민 기준은 하루 생계비 4달러이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5개국의 빈민 기준은 1.25달러인데, 이는 2005년 달러 시세에 구매력(purchasing power)을 적용한 기준인데, 이 기준 이하로 사는 이들은 가난하며 불결하고 야만스러우며 수명도 짧다. 또한 이들은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설령 충분한 음식은 있더라도 적절한 의복과 쉴만한 공간은 갖고 있지 못하다. 이들을 이러한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 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서 충분한 조치는 아니다.

현 시대가 빈곤층을 줄인 성과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인상적이다. 비록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중 산모 사망률을 75%, 유아 사망률을 66% 줄이자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지만, 빈곤층을 절반 줄이자는 목표는 5년 앞당겨 달성됐다. 그런데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의 주요 원동력은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에 의한 경제성장이다.

빈곤층 비율은 20세기 후반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빈곤층 감소의 2/3는 바로 경제가 성장한 나라들에서 나왔다. 그리고 나머지 1/3은 불평등의 감소에서 기인했다. 평등하지 않은 나라에서의 소득의 1% 성장은 빈곤층 비율의 0.6% 감소에 그쳤지만 평등한 나라에서는 빈곤층 비율의 4.3% 감소로 이어졌다.

빈곤층 감소에 무관심했던 중국에서 빈곤층 감소분의 2/3가 나왔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은 불평등을 빠르게 악화시키기도 했지만 절대 빈곤층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 1981년에서 2010년 사이 중국에서 6억8천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으며, 극빈층의 비율은 1980년 84%에서 현재 10%로 현저히 감소했다.

그러나 세계가 앞으로 20년 동안 10억 명을 극빈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과거보다 더 어려울 전망인데,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극빈층이 밀집해 있는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의 행정력(governance)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중국의 빈곤 탈출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이유는 이미 10억 명의 사람이 극빈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남아 있는 매우 비참한 사람들을 극빈의 삶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힘들 것이다.

하지만 만약 개발도상국들이 지난 2000년 이후 보여줬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빈곤 국가들에서도 중산층이 증가하며, 불평등도 더 심화되지 않는다면,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극빈층 비율을 현재의 16%에서 2030년까지 3%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된다면 빈곤계층 10억 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즉 경제 성장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진행되고 소득의 격차가 더 줄어들어 극빈층이 거의 사라지는 수준인 1.5% 비율로 하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의 극빈층은 1억 명 가량으로 줄어들 것인데,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

## 극빈층 43%에서 21%로 감소...약 10억 명 탈피
## 중국 등 개발도상국 경제성장 가속화가 큰 영향

〈2면에서 계속〉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기도문을 채택할 수 없고 공립학교에서는 성경구절을 읽힐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57%가 반대했으며, 39%는 찬성했다.

18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 사이에서는 공립학교 내 기도를 금지한 결정을 약 56% 이상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핑턴포스트는 공립학교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하나님과 신앙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전했다.

예로 "1960년대 중반, 크리스천선수선교회는 약 8,000명 이상의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1998년 미네소타 주 패트릭헨리 고등학교(Patrick Henry High School)에서 시작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WWJD, What Would Jesus Do?)라는 운동도 있었다.

또한 신문은 또 다른 예로 CCC(Campus Crusade for Christ)를 꼽았다. CCC는 원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단체였으나, 현재는 약 200개 이상의 고등학교에도 퍼져 있으며 이 학교 가운데 대부분은 공립학교다.

결론으로,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진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 공립학교에 성경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Time) 역시, 미국 37개 주 460개 교육구에서 성경교사를 채용,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수는 급속히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학생과 학부모도 6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영향력이 가장 큰 시사주간지인 타임(Time)도 성경교육 확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성경이 무시된 사회, 기도가 그친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이며 얼마나 병든 사회인가를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과 기도,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인 줄 착각했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도였는가를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다.

#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어린이를 후원하라!

〈1면에서 계속〉

기존의 여자아이들의 졸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에서는 아동후원이 남자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우리는 아동후원이 후원 아동들의 비후원 동생들에게 미치는 여파의 증거까지 확인했다.

간단히 말해 아동후원이 교육에 미친 영향은 크다. 1913-1931년 짐 크로우 법 아래서 흑인들을 교육했던 로젠월드 스쿨(Rosenwald School, 20세기 초에 주로 흑인교육을 위해 미국 전역 특히 남부 지역에 세워진 5천여 개 학교와 가게와 교사사택을 가리키는 비공식적 이름) 프로그램이 미친 큰 영향과 얼추 견줄 만하다.

아동후원이 교육에 미친 영향은 오포르투니다데스(Oportunidades)가 미친 영향의 대략 두 배에 이르는데, 오포르투니다데스란 멕시코에서 아동들이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조건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멕시코는 199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아동이 학교에 계속 다니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어머니에게 가구 최고 수입의 10%까지 현금으로 지급했다. 2006년 전체 가구의 25%에 해동하는 580만 가구가 이 정책의 혜택을 보았고, 특히 소외 지역 가구의 75%가 이 정책의 혜택을 보았으며, 브라질의 줄루 대통령이 이 정책을 본떠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는 비슷한 정책을 펴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오포르투니다데스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

## 받는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 '베푸는 사람'으로 육성 계발시키는 것이 관건

었기에 세계 12개국이 세계은행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멕시코를 따라 이 제도를 시행했다.

컴패션의 아동후원은 교육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다. 후원 아동은 자라서 유급 노동자가 되는 비율이 14-18% 더 높았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35% 더 높았다. 컴패션이 후원하는 많은 아이들이 자라서 실직자로 남거나 농업 분야의 단순 육체노동자로 남지 않고 교사가 됐다. 이들이 자라서 지역사회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상당한 근거도 발견했다.

지금껏 개발사업을 대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교육이 부족하면 학교를 지어준다.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병원을 짓고 의사를 파견하거나 우물을 파준다. 사람들의 소규모 사업이 침체되면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이런 방식 하나하나는 올바른 상황에서 사용되면 유익하다. 그러나 그저 공급하는데 그친다면 가난의 뿌리를 방치하는 셈이다. 가난이 낳은 행동, 사회 체계, 사고방식 등을 방치하는 셈이다. 가난을 뿌리뽑는 열쇠는 긍정적 변화를 이뤄내는 인간의 능력, 또는 자신의 능력을 보는 인간의 시각에 달렸다.

실제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마다 그들에게 자활 능력이 없다고 믿는다는 미묘한 메시지를 전하는 셈이다. 몇몇 부분에서 특히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라면 개입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열등감을 키우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훌륭한 개발단체는 이것을 안다.

결론으로, 컴패션이 아동발달에 관해 주장하는 방식은 아동들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몇몇 기본 자원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아동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의 인격을 키워주며 영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 인간의 내면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컴패션은 아동들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한다.

누군가 내게 평범한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오면 그에게 우리의 연구 결과를 들려준다. 가장 흔한 반응은 이렇다.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런 단체들이 사기꾼이 아닐까 늘 의심했거든요." 이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사기꾼이 아니다.


# 부목사 청빙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etro Detroit)는
PCUSA 소속 교회로서 Southfield, Michigan 에 위치하여 "3세대가 함께 제자 되는 교회" 의 비전을 품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북미주 목회 경험 있는 분
이중 언어 (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PCUSA 목사이거나 가입 가능하신 분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
미국 거주 취업이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이력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신앙고백서
추천서 3통 (목회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밀봉하여 발송)
최근 설교 동영상이나 CD/DVD/MP3 2 편
학위 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제출마감: 2013년 8월 31일**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www.kpcmd.org

**서류 보내실 곳**
KPCMD APNC
26492 Mandalay Ct.
Novi, MI 48374
email: kpcmd.apnc@gmail.com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etro Detroit)



# 풀타임 교육목사님을 청빙합니다.

**Seeking English Ministry Pastor(Ordained Pastor)**

North Carolina 그린스보로 지역에 위치한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교단: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타임 교육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KPCG is looking for a full time English Pastor with passionate heart for serving and providing leadership in College group and English Congregation Ministry.

**1. 자격(Qualification):**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안수받으신 분
(본 교단이 인정하는 학교이거나 준하는 학교) An accredited Seminary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Permanent resident or citizen)
-1.5세와 2세와 영어회중 사역에 소명이 있으신 분
Passionate for 2nd Generation and English Congregation
-언어(Bilingual Korean Speaker/Fluency in English required):
이중언어, 특히 영어 설교와 영어로 사역하실 수 있는 분

**2. 담당부서: 교육부, EM, 대학청년부**

**3. 제출서류(Application Requirement):**
-이력서(Resume-includes family status with photo), 졸업증명서(Diploma of M.Div.),
목사안수 증명서(Certificate of Ordination), 추천서 2장(two Recommendation)직접 교회로 메일),
목회소견서(Statement of faith and vision for ministry), Recently, recording English Sermon(1 CD)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Application will not be returned)
**-접수 마감: 8월 31일**(Application Deadline)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vhanus@hotmail.com 참조 홈페이지 www.kpcgnc.com

**-보내실 곳**(Submit):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Greensboro)
3523 Johnson St. High Point, NC 27265 교육목사 청빙 담당자 앞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Greensboro)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 교회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날 교회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대거 교회를 떠나는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에 진학하면 80% 이상의 자녀들이 1, 2년 안에 교회를 떠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해가 갈수록 점점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 무엇이 문제인가? 흥미를 끌지 못하는 딱딱한 예배 때문인가?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설교 때문인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교회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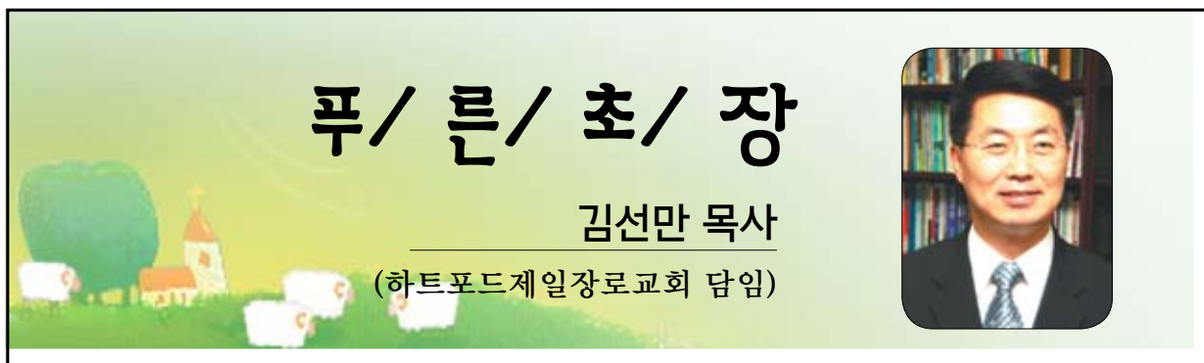
복음 전파단체인 Fixed Point Foundation의 대표 Larry Taunton은 대학교에서 Secular Student Alliance(SSA) 혹은 Freethought Societies(FS) 등 무신론자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 중인 젊은이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의 통념과 달리, 청년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 설교가 지루하거나 예배가 딱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놀이문화를 도입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신앙을 포기할까 두려워서 성경을 집중하여 가르치지 않고 그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보다 그들을 재미있게 해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그들을 무신론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진리를 교회가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이 더 잘 줄 수 있는 흥미에 교회가 매달린다면, 떠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흥미를 얻자면, 그들이 세상을 향하지 왜 교회로 오겠는가? 어떻게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팝 콘서트, 영화, 연속극, 수만 명 모이는 스포츠 경기 등과 흥미를 놓고 경쟁을 하여, 떠나가는 청소년,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교회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성경의 진리로 승부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하지 않는다. 어린이, 청년, 장년들에게 선포되는 설교에 '십자가의 도'가 빠져있다. 소화시키기 어려운 성경의 진리들, 곧 죄, 회개, 심판, 지옥에 관한 말씀을 외면하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도덕적 교훈, 지식과 정보, 감동과 재미를 주는 '가벼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

확신 있게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를 자각하는 것, 곧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잊지 말자.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집중하여 가르치자. 그들이 신앙을 등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 푸/ 른/ 초/ 장



김선만 목사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

# 물두멍의 은혜
## (출애굽기 30장 17-21절)

막달라 마리아는 흉악한 귀신이 들려 폐인처럼 살며 희망이 없었지만 예수님 만난 후 인생의 문제를 해결 받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막 앞 뜨락에 있는 물두멍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물두멍은 덮개가 없고, 크기와 치수가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성전 물두멍은 치수가 나와 있지만 광야성막의 물두멍에는 크기와 치수를 명시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제한이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물두멍에 씻기만 하면 은혜 받고 비록 광야에 살지만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물두멍은 받침이 있는 일종의 세수 대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죄가 기도를 막고, 죄가 감사와 행복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물두멍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17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출24:12상)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실제로 산에 올라갔고,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과 성물의 모양, 치수, 재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출25:9). 물두멍제작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물두멍 제작 명령도 있고, 또 재료도 있지만 크기와 치수가 없고, 덮개가 없습니다. 덮개가 없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입니다.

슥13: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예수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말하며 그 보혈을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딛3:5, 6)라고 했습니다. 죄를 씻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씻고 사함 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죄를 주님께서는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잡아 가두며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왔던 무명의 여인도 용서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그때까지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므로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운명에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진 삶을 살았지만 용서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성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삶을 오염시키고 남에게도 전염됩니다. 어떻게 죄의 오염과 전염의 불길을 차단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씻는 길 뿐입니다.

**둘째, 교제와 동행의 은혜가 있습니다(18-19).**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수족을 씻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씻는다는 것은 떠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는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상과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시장터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였는데 마술사들은 마술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습니다(행19:19). 죄를 떠나는 결단의 표시로 값비싼 마술책들을 몽땅 불살라 버렸습니다.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어디서 놋을 구했습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애굽할 때 거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거울이 바로 놋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인들이 놋거울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성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바친 거울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출38:8). 그들이 그것들을 바치기 전에 먼저 결단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상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헌신의 결단을 한 표시였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아 신앙 생활하여도 옛 습관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변화와 영적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하고 죄를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성화는 평생 계속 됩니다(20-21절).**

전신을 씻는 것은 평생 한 번입니다. 그러나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씻는 것은 반복적입니다. 이것이 생사와 관계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물로 씻어죽기를 면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 최후의 만찬, 둘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셋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절대절명의 밤에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왜 씻어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씻는 것은 영적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요13:10).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요15:3)라고 하셨습니다. 엡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WEC 선교부에서 출판한 '신앙간증 100선작'인 "Beyond the Edge"라는 책을 친구 이영춘 선교사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야기식으로 기록된 책이어서 대부분 쭉쭉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서부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에서 37년간 선교한 영국 여선교사 릴리 게이놀의 간증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약 37년 전 어느 날 밤 열여섯 살 먹은 파올로라는 소년이 선교사를 찾아와 "하나님의 길에 들어가고 싶어요"라는 말을 대뜸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죄사함을 받고 죽을 때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선교사님은 그 소년과 함께 무릎을 꿇고 그의 죄를 용서해주시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해주심사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가족들이 이것을 알자마자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벌써 장례가 난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친형과 삼촌이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그는 두려움에 선교센터로 피신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초지종을 듣고 동역자들과 함께 그를 붙들고 기도한 후 결단을 내리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침 같이 간 전도자가 그의 가족 친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길길이 난리를 펴던 모습은 사라지고 모기 날아다니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전도자가 말씀을 마치자 파올로는 기쁨이 충만하여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면서 부모님이 믿을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각오한, 그러면서도 공손한 태도를 보고 가족들은 더 이상 그를 협박하지 않았고 결국 그를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선교사님에게 글을 배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파펠족(Papel Tribe) 성경번역과 클리닉 일을 도우면서 전도하여 2010년 현재 2천 명의 파펠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 소년은 현재 그들의 목회자가 되어 WEC선교회와도 귀한 동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을 원하십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말씀에서 영혼을 씻으며 내면세계를 깨끗이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성도는 한 번 세례 받지만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 말고 다른 곳에 물두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도원, 수양관, 4H클럽, YMCA 등 어느 곳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죄를 씻어 살리고 새 출발하게 하는 보혈의 샘입니다.

Better World, Better Life, Better You!
베데스다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베데스다 대학교는 .. 1976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복음화와 인류봉사를 주도해 나갈 전문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며 세계를 향해 경쟁력있고 국제성을 갖춘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 교육부 USDE및 고등교육 인가기관 CHEA 산하 ABHE 및 TRACS의 인가를 받은 정회원대학으로서 학사, 석사및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도 발행하고 FAFSA를 통한 연방 정부 학비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하며, 기독교 대학 체육 협회 NCCAA에 공식적으로 가입되어 축구부(남/여), 야구부 등 체육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학점취득이 가능하므로 전세계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및 세부전공

신학학부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실천, 교육합니다
풍부한 사역 경험과 복음주의, 오순절 영성에 투철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신학학부는 목회학, 성서신학, 선교학, 기독교교육학 전공이있으며 목회학, 성서신학 석사과정과 목회학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유아교육학
복음을 바탕으로 사랑과 책임감 있는 교육 모델을 제시합니다
유아교육 교사, 원장 자격증 과정과 함께 4년제 학사학위(B.A) 과정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와 원장, 유아교육 사역자를 배출합니다.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 경험이 없어도 열정과 꿈만 있다면!
다양한 디자인 클래스로 자신에게 맞는 디자인을 살려보세요. 졸업후에는 아트 디렉터, 광고회사, 그래픽 디자이너, 시각디자인 분야에 관련된 여러 기업체에서 근무하실수 있습니다.

음악학부
음악적 재능과 학문 탐구를 통한 손색 없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역량있는 교수진을 통해 강도 높은 레슨으로 클래식, 실용음악, 찬양사역 등 다양하게 세부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다양한 취업 기회가 주어집니다.

경영학과
경영학과를 통해 자신만의 꿈을 키워보십시오!!
현대적인 경영관리의 기법, 실무능력과 실질적인 경영지식을 습득 함으로서 비지니스, 상업, 정부 그리고 기술적인 각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IT학과
미래가 밝은 IT학과는 기술 전문인 배양을 목표로 합니다
21세기를 주도하는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며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등의 전문인 자격증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졸업전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oll Free 1.800.960.4583 Fax: 1.800.960.4584
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admission@buc.edu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을 위한 기도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전세계에서 무슬림이 한달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라마단도 거의 끝나간다.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은 해가 있는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 무슬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5가지 실천 중 하나이다. 안타까운 것은 전세계적으로 16억의 무슬림들이 하루 5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세계의 교회는 너무도 태평하게 주무시고 있다.

이슬람전략가들이 한국과 영국을 이슬람 세계정복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영국은 거의 무너져내렸다. 이슬람지도자들은 한국교회의 움직이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이슬람화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무섭게 진행된다. 웬일인지 금년 라마단기간 동안 무슬림을 위한 중보기도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몇 가지 기도제목을 나눈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하여 너무도 모르고 있다. 이슬람의 참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다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모아두었던 약 360여개 부족들의 종족신들 중에서 알라(Allah)는 가장 강력한 신이었다. 그 말은 가장 강력한 종족이 섬기는 우상이었다는 말이다.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는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이미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니라"(꾸란5:17)고 한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신성 모독자들로 여긴다. 기억하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다르다. 그런데 이슬람권의 요구로 한국교과서에는 알라 대신 하나님으로 대치되었다고 한다.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슬람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듯, 예수님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장차 올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고 주장한다(꾸란61:6). 하지만 꾸란에 보면 무함마드는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서 알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40:55). 따라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무함마드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도 억지주장이다. 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주장한다(4:157).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마저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4:158). 그들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한다.

**무슬림들이 원수를 갚을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신다. 꾸란에서는 성경과 정반대이다. 위선자들을 심판하고 원수갚는 것이 장려된다(꾸란9:80). 여기서 위선자들은 불신자들을 친구로 삼는 자들(4:138), 재산을 아끼고 선뜻 희사하지 않는 자들(9:67), 불신자들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자들(3:167) 이다. 무슬림들은 자신이 알라를 위하여 원수 갚는 자라 자처한다.

**무슬림들이 지하드의 잘못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지하드 (성전)는 무슬림들만 쓰는 용어이다.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다. 꾸란은 불신자들마다 살해하라(9:5), 지하드를 거부하는 사람은 위선자로 분류하여 심판을 선언한다(3:167). 무슬림이 아니면 모두 사악한 짐승들이라(8:55) 한다. 또 살인의 책임을 유보해준다. 그들을 죽인 것은 너희들이 아니다. 알라께서 죽이신 것이다(8:17 김용선역). 그들은 알라의 심판의 대행자라는 생각이다. 성경과 반대이다.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 간에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무슬림들은 왜 기독교인들을 미워할까? 일반적으로 십자군 전쟁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말부터 13세기말까지 있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라"는 말은 7세기부터 이슬람의 꾸란에 기록돼있다. 꾸란은 "마리아의 아들 메시야는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이니라"(꾸란5:72, 5:17). "알라는 세분 중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자들은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이다"(5:73).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느니라"(19:88-91).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알라를 모독하는 자들 즉 죽여야 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의 수많은 구절들이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있다.

무슬림들과 유대인들 간에 화해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무슬림들은 왜 유대인들을 미워할까? 일반적으로는 1948년 이스라엘독립 사건을 그 이유로 말한다.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을 미워하라는 말은 7세기부터 꾸란에 기록돼있다. 무함마드는 자신이 죽기 전에도 주변에 살던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다. 꾸란은 유대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장 사악한 피조물들이며 영원토록 불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98:6),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삼는 자들은 그들과 마찬가지며 불의한 자들(5:51)이라고 했다. 유럽에서 무슬림들이 20%가 넘는 도시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감히 자신들의 전통 모자를 쓰고 길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 세계 어디에도 16억의 무슬림들의 눈을 피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이슬람의 타끼야(위장교리)를 알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타끼야Taqiyya 교리는 위장교리 즉 거짓말해도 된다는 교리다. 물론 이들은 이 사실을 부인한다. 하지만 꾸란은 맹세 속에 비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2:225 최영길). 즉 무슬림들은 교리적으로 허락된 거짓말을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알아듣고 속는다.

꾸란을 한글로 번역할 때 "목을 치라"는 "목을 때려라"로 번역했다(8:12 최영길). 엄청난 차이다. 아내가 말을 안 들을 우려가 있을 때는... '때려라'를 '가볍게 때려라'(4:34 최영길)로 번역했다. 아랍어 원문에는 '가볍게'라는 말은 없다. 이슬람학자가 하는 말들이나 무슬림 설교자들 혹은 이맘(성직자)들이 하는 말들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슬람권에서 박해당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여성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었다 감사해야한다'라고 주장한다. 사실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꾸란은 "그대들은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화려한 몸차림을 해서는 안 된다"(33:33 김용선역). 실제로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원리주의 국가였던 아프가니스탄(1996-2001)에서는 꾸란과 하디스에 기록된 대로 여성들을 대우했다. 여성들은 부르카를 입지 않으면 외출을 금지 당했다. 실수로 발목이라도 보이면 공개 채찍질을 당했다. 여자학교는 모두 폐교조치하고, 여성들은 모든 직장에서 해고시켰다. 여성은 스포츠클럽에 가면 안 되고,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서도 안 된다.

〈13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 동성애 인정 지지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야

**Q:**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교인 풀러신학교가 교내에서 동성애 동아리인 '원 테이블'을 인정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사디나에서 한 신학생이

**A:** 한마디로 풀러신학교의 교내 동성애 동아리를 인정해준 것은 심히 잘못된 것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결정은 총장 마크 래버튼 본인의 결정인지 아니면 교수회에서 함께 결정한 것인지는 모르나 이것은 올바른 신학교육과 교회에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신학교가 성경을 떠나 인본주의와 타협하여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레버튼 총장은 풀러신학교는 모든 학생, 교수 직원들이 혼전 혼외 동성애적 행위가 성경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하면서도 동성애 동아리인 LGBT(레즈비안,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모임인 '원 테이블'(One table)을 허락해 성적 지향성의 문제와 관련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연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신학교 지도자는 사건과 사물을 올바로 보는 정견(Right Sight)과 선견(foresight)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학교의 이미지와 발전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문제에서는 단호해야 하는데 동아리 모임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여 하나를 허락하면 다른 또 하나를 허락하게 되며 결국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신학교로 전락하면서 둑이 터져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본인도 풀러 목회학 박사를 취득한 졸업생이지만 이 문제가 불거지자 졸업생으로서 학교의 결정에 심히 유감이며 풀러 졸업생인 것이 부끄럽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풀러 총장은 지금이라도 속히 동아리를 인정한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풀러는 이런 일로 서서히 신학적인 좌경의 길로 걷게 될지도 모르며 앞으로 풀러 신학교는 신학적으로 위험한 신학교이므로 한국교회에서는 앞으로 풀러로 학생을 추천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2년 5월에 라미라다에 위치한 복음주의신학교 바이올라(Biola)대학에서도 Queer Underground(퀴어 언더그라운드)라는 동성애 동아리가 결성된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으나 보수적인 학내분위기로 인해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풀러신학교의 동성애 동아리 결정은 다른 신학교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신학교에도 동성애 동아리를 결성하려고 머리를 쳐들 것입니다. 기독교명문사학으로 꼽히는 중부의 휘튼대학교에서는 지난 2월에 동성애지지학생 동아리를 인정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성공회는 2003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신부를 주교로 공식적으로 인준했고 미복음주의 루터교회(ELCA)는 2007년에 동성애 성직자들을 목회자로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단인 미국 최대 장로교단 미국장로교(PCUSA)도 동성애 목사안수를 허용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인 연합감리교(UMC) 소속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헌법을 어기고 동성결혼 주례를 허락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레곤 주 한 빵집에서 신앙적인 이유로 레즈비언 결혼식에 사용될 빵 주문을 거절하다 지역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습니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총으로 쏴버리겠다거나 강간해버리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러나 빵집 주인은 "이 시험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라며 "하나님을 이 일을 통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용기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의 진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가르침이나 단체를 기독교회는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으로 성경의 원칙과 반대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 국제개혁대학교 ·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2013년 가을학기 학생 모집 안내

## 개강 2013년 8월 19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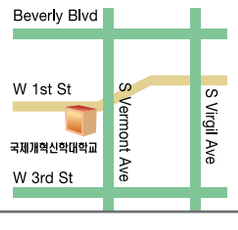
### 본교의 사명과 특징

본교는 성경의 절대권위를 믿는 보수개혁주의 신학교로서 1977년 개교했으며 1979년 제3회 총회에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신학교로 헌납되었습니다. 본 총회는 1981년 북미주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APARC)의 정회원이 되었으며 본교는 성경적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신학교육으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차세대의 목회자, 선교사, 교육자,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 주정부 인가 (BPPE)
- ABHE 정회원 학교
- 연방교육국 인정학위 인준기관으로 안수 받은 후 군목사역을 할 수 있음
- 알려드립니다.

본교는 총회가 인준 승인한 학교와 이사회로서 본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총회학력자격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건물에서 동일 신학교 이름으로 운영하는 광고된 학교는 본 총회와 상관이 없으므로 그 학교 졸업생들은 본 총회에서 실시하는 고시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국제개혁대학교 · 신학대학원**
125 S. Vermont Ave. L.A., CA 90004 Tel: (310)986-9797, (213)235-7395
iruskapc125@gmail.com
**총장 황은영 박사 이사장 양수철 박사**




■ 학위과정
유치원교사, 원장자격프로그램 (Preschool Teacher * Director Cer.)
학 부: 기독교문학사 (B.A.C.E.)
대학원: 기독교학석사 (M.A.C.E.) / 목회학석사 (M.Div)

■ 특전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Form 발행
각종장학금제도 (성적, 근로, 동문, 총회 외 다수 장학금혜택)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위한 정부보조금 안내

■ 개강일: 2013년 8월 19일 (월)

■ 영성수련회: 2013년 8월 19 - 20일 (월-화), 저녁 7:00
강사: 엄영민 목사 (총회장,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 등록일: 2013년 7/31(수) - 8/16(금)
7월 31일(수) ~ 8월 9 일(금) Early Bird (No Registration Fee)*
8월 12일(월) ~ 8월 16일(금) Regular Registration
* 조기등록시 등록비 면제

■ 강의 장소
Los Angeles: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Orange County: 추후발표 예정
Valley 지역: 추후발표예정

입학상담: Rev. Peter An
TEL. (310)986-9797

목회서신

# 저는 지금도 막내입니다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댈러스신학교를 다닐 때 만난 귀한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컴퓨터 계통의 일을 하시던 안수집사님이셨는데 30대 말의 늦은 나이에 소명을 받으시고 신학교에 오셨고, 또 한 분은 캐나다에서 오신 앤드류 씨였습니다. 두 분과 신학교에서 같은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깝게 교제하였습니다. 제가 안수집사님에게는 신학교 1년 선배가 되고 앤드류 씨에게는 신학교 1년 후배였지만 나이로는 안수집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15살 정도 많으시고 앤드류 씨는 5살 정도 많았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도 삼형제중 막내인데 신학교에서도 우리 세 사람 중 막내였습니다.

올해로 우리 셋이 신학교를 졸업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안수집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표적인 이민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시다가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7명의 입교 교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목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를 20년 동안 신실하게 하시다가 새로운 젊은 담임목사에게 중형 사이즈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를 넘겨주시고 깨끗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는 교회에 조금이라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기도로 은퇴 준비하던 중 후임목사가 소신껏 목회하도록 자리를 내주시기 위해 은퇴하기 1년 전에 안식년으로 미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식년에서 돌아온 그가 담임목사 은퇴와 위임예배를 드리며 후임목사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은 성도들을 사랑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섬겼던 성도들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매정할 정도로 끊고 선교지로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사모님과 함께 C국에서 현지 젊은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저희 부부에게 인생의 멘토이시고 기도의 후원자시며 목회의 본을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입니다.

앤드류 씨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캐나다로 돌아가 인디안 선교를 하시다가 C국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C국의 명문대학에서 우수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같은 대학에서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로 현지 학생들을 지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부가 다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길거리에 내버려진 신체장애아들과 정신장애아들 십여 명을 입양하여 돌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고아원을 운영하면 지원받기도 쉽고 도움받기도 쉬울 텐데 왜 입양까지 하여 이 많은 장애아들을 직접 키우느라 고생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선교사님부부는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버려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아원이 아니라 부모지요. 우리는 이들에게 아빠 엄마가 되고자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Faith Mission(선교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고 성령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교)을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선교사님은 한국의 모 신학교에서 교수청빙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이제 목사나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이 아이들의 부모로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선교열매를 많이 맺은 것도 아니고, 선교비 모금의 귀재도 아니며, 선교대회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유명한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25년 동안 C국에서 사역을 하였지만 누구에게 보일만한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 이 선교사부부를 존경합니다. 이들은 제게 만큼은 가장 유명한 선교사요 신실한 형제이고 믿음의 선배입니다.

저는 압니다. 이 두 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으로 자신들의 야망을 포장하지 않았고, 또한 성공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신실하게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다. 이 분들은 제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삶과 사역이 어떤 것인지 말보다 삶으로 모델이 되어주신 귀한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25년이란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갔습니다. 한 분은 목회자로, 한 분은 선교사로 저에게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지, 어떤 마음으로 목양을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의 막내가 될 수 있어서….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세계교회, 라마단기간 30일 합심기도

'기도로 무슬림을 사랑하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기도운동)이 21년째 진행 중이다. 전 세계 교회는 공통의 기도제목으로 15억 이슬람권 주민을 생각하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

기도운동 측은 24일 "지난 20년간 기도를 통해 북아프리카 등 이슬람권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며 "교회와 성도들이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 달라"고 밝혔다. 기도는 다음달 7일까지 이어지며 미국 호주 중국 브라질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는 홈페이지(30prayer.org)가 개설돼 기도제목을 제공하고 있다.

기도운동은 이슬람권의 금식기간이자 축제의 절기인 라마단(7월 9일-8월 7일)과 맞물려 있다. 기도운동 측에 따르면 라마단에 기도시기를 맞춘 것은 이 기간 무슬림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집중하자는 취지에서다.

기도는 수많은 무슬림이 기독교 신앙에 눈뜨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의 기독교 위성방송인 SAT-7에 따르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에서는 '복음을 만나 자유롭게 됐다'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 SAT-7이 최근 '영혼의 자유(Free Souls)'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변화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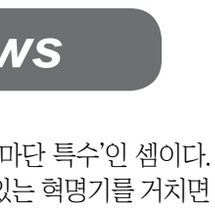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9번째 달로 이슬람교 신앙의 '5대 기둥'으로 불린다. 동틀녘부터 해질 때까지 음식과 음료, 흡연, 성행위 등이 모두 금지되며 '절제'와 '나눔'이 강조된다. 저녁엔 만찬과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하지만 요즘 이슬람 국가들의 라마단은 '축제'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요르단타임스 등에 따르면 라마단 기간에 호텔이나 식당, 바 등지에서 열리는 저녁 특별 이벤트는 다양한 식단과 함께 제공된다. 일종의 '라마단 특수'인 셈이다.

이집트는 2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혁명기를 거치면서 축제 분위기는 줄었다. 단적인 사례는 일몰 이후 첫 식사인 '이프타르'의 변화다. 이전까지 '이프타르'는 하루 금식 후 첫 식사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시행됐지만 올해는 이 식사를 기준으로 시위가 열리고 있다. 반무르시 진영의 시위대는 타흐리르 광장에서, 친무르시 시위대는 나흐다 광장에서 '이프타르'를 마친 후 시위를 시작한다고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47)씨가 전했다.

기도운동 관계자는 "기도는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현지 기독교인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며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빛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 생명의말씀교회, 북유럽 오순절 성령운동



울프 에크만(63·사진) 목사는 스웨덴 고텐버그 출신으로 고교 졸업을 며칠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인생의 진로를 완전히 바꿨다. 웁살라대학에 진학해 신학과 역사학, 민속지학 등을 공부한 뒤 루터교회 소속으로 사역하다 독립해 1983년 성령운동에 입각한 '생명의말씀' 교회와 바이블센터를 설립했다.북유럽 오순절 성령운동의 중심인 생명의말씀교회는 출석 성도가 3000명이 넘는 유럽 최대 교회 중 하나다. 교회는 이주민 아동과 가족, 노숙인 등을 위한 구제와 해외선교, 출판, 찬양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히 사역하고 있다. 1만명이상이 참가하는 유럽 컨퍼런스 등 매년 3-4개 컨퍼런스와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교회와 함께 설립된 바이블센터는 그동안 9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교회는 또 동유럽과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28개의 바이블스쿨을 운영 중이며 제자들이 운영하는 바이블스쿨까지 포함하면 5만4000여명이 이곳을 졸업했다.에크만 목사는 50여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이 책들은 50여개 언어로 번역됐다. 유럽 각국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성령운동을 전개했다. 에크만 목사는 지난 5월 설립 30주년 기념예배 때 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요아킴 룬드크비스트 목사에게 승계했다.

## 성경구절 문자메시지 보낸 기독인 체포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이 성경구절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인도 모닝스타뉴스는 이슬람 성직자에게 성경 구절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파키스탄의 기독교인 부부가 체포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파키스탄 중부 고즈라 지역의 무슬림 성직자인 라나 무하마드 에자즈는 기독교인 샤프카트 마시씨가 자신에게 '불경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마시씨 부부를 즉시 불경죄 혐의로 체포했다.

고즈라에서는 지난주에도 한 젊은 기독교인이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과 2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파키스탄 최대 도시인 카라치에서도 2011년 카마르 데이비드라는 기독교인이 문자메시지로 성경을 보냈다는 혐의로 수감됐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사건이 있었다고 모닝스타는 전했다.

마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무슬림 성직자에게 성경 구절을 보낸 적이 없다"며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즈라 경찰 당국은 "불경스러운 메시지를 보낸 휴대폰이 마시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닝스타는 "파키스탄에선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갈아끼우는 식으로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며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미, 러시아 반동성애법 항의 확산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러시아의 반(反)동성애자법에 항의해 러시아산 보드카와 소치 올림픽 보이콧을 제안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게이바 업주들도 인기 있는 러시아산 보드카 스톨리치나야 브랜드의 판매금지 캠페인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보드카 배척운동은 인기 게이 칼럼니스트인 댄 새비지 등 다양한 활동가와 조직들이 호소에 나서면서 지난주 확산하기 시작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시애틀, 토론토, 밴쿠버 등지의 게이바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 동성연애자 행동단체인 '퀴어 내이션'(Queer Nation)은 31일 뉴욕시내 러시아영사관 앞에서 '보드카 폐기' 퍼포먼스를 열 계획도 세웠다.

이에 대해 스톨리치나야 제조사의 발 멘델레예프 최고경영자(CEO)는 러시아의 반동성애자법을 거세게 비판하는 성명을 통해 그의 회사 SPI그룹이 오랫동안 세계의 동성애자 공동체를 지원해온 사실을 부각시키며 이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미국의 일부 활동가들은 보드카에 이어 러시아산 철갑상어알 판매금지 캠페인도 제안하면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미국회사들이 동성애자 처벌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도록 촉구했다.

활동가들은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소치 올림픽의 미국내 방송권을 가진 NBC에 대해서도 더 공세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내 동성애자들의 움직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으로 촉발됐다. 이 법은 동성애 공동체에 관한 정보를 미성년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동성애 집회를 열면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위법한 외국인은 15일간 구금하고 나서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OC는 러시아 정부의 최고위층으로부터 소치 올림픽 참가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동성애권리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은 IOC가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동성애권리 활동가인 니콜라이 알렉세예프는 소치 올림픽이 개막하면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치 현지에서 게이 프라이드 행진을 개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Korea
• Nov 4-8 (11월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의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안

## 주제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권 태 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 부모를 통한 자녀의 복과 화 (2)

(삼하12:13-18,24-25)

어린이들의 신앙은 어른들의 신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편견이 적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기는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때 심겨진 신앙과 가치관은 평생 주 안에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막10:15).

현재 한국 사회는 다양한 문화, 인종, 종교가 유입되어 갑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생겨나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지만 이들 속에는 기독교 문화를 깨뜨리는 요소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기독교 문화를 유지하려면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유치부를 위해 선교원을 운영하며,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인 '비전의 교실'을 운영합니다. 성도의 자녀들이 와서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으며 가정과 교회 속에서 순수한 문화를 배우고 세대 간의 거리를 좁혀 1·3세대가 신령한 가정 안에서 균형 있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지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직접 찾아가 요청해 2000년, 푸드뱅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콩나물공장, 빵공장, 초중고등학교 등의 잉여식품을 차로 가져와서 매일 독거노인과 생계가 어려운 500여 가정을 돕습니다.

독거노인 분들 중에는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어 혼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 돌보고자 2002년,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군포시니어클럽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매년 1,000여명의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진리,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장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하므로 교회는 자라는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해서는 '청소년복지학교'를 운영하여 방학 때마다 복지현장을 체험하고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복지시설들 봉사를 통해 장년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복지의 현장을 제공합니다.

말씀과 복지를 두 수레바퀴 삼아 목회를 하다 보니 어린이나 청소년, 장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좋은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대가 어우러져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받는 토양이며, 세상으로 나가 받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토양입니다.

### 4. 결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양육한 결과는 자녀들의 미래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삼하12:13).

그러나 죄를 범한 상태에서 잉태한 아들은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35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고 병아리 같던 아이들이 성장해 청년이 되고 부모가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믿음생활의 성숙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중학생이 되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오리 새끼는 물로 가고 독수리 새끼는 날아오릅니다. 부모의 삶과 신앙은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성도는 목사를 닮는 것이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목회해도 목회자의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면 설교한 것은 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려고 해도 목사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돌아서버리면 그 권위가 완전히 와해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12:31)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며 그 다음은 아내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목회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성도들에게 외면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목회자의 삶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보며 항상 축복해주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목회자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니 아이답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목회의 현장에서 자란 자녀들은 생긴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목회에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고민하며 누가 되지 않으려 애씁니다. 자녀들에게 목회자와 직분자의 삶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목회자, 직분자의 자녀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도록 키워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부모의 잘못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삶으로 목회하고 회개하여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자녀도 키우시고 성도들도 삶으로 양육하여 교회도 균형 잡힌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가도록 믿음의 선진으로서 본을 보이는 세계의 디아스포라,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

**"사람은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닮는 것 부모의 삶과 신앙으로 자녀 닮게 해야"**

### 3.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되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신령한 가족인 성도들에게 말씀 실천의 장을 열어주고자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성민원을 설립하고 복지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가정처럼 생각하다보니 큰 가정 안에 연약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복지를 하게 됐습니다. 노인들의 영혼의 복지를 위해 어르신들을 돌본 일이 노인복지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어느 어르신 댁에 심방 갔을 때였습니다. 그 어르신은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이로 인해 온 가족이 쩔쩔매며 힘겨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 요양원을 설립했습니다.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정과 같이 품으며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가정과 어르신들 모두 밝아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원 아이들은 한 달에 1-2회 요양원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만나고,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거리낌 없이 안기게 되

## 칼럼 음악목회 (6)

# 찬송의 능력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과 음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왜 이 음악을 두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시150편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즉 우리가 아직도 숨을 쉬고 살아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시69:34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즉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인생에 곤고한 날에도 그의 은총을 인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음악을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 물론 우리의 존재 의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있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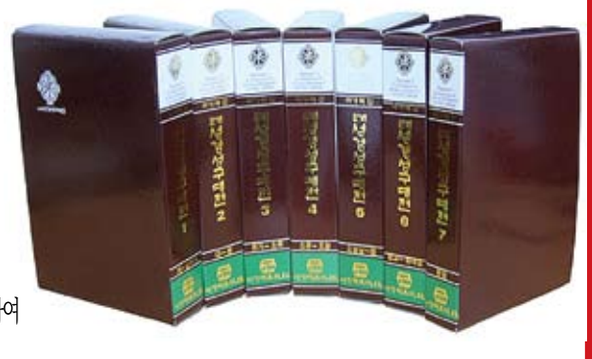
1)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22:3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100:4을 근거로 죄인인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2)찬송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시8:1,2). 3)영혼의 즐거움과 만족이 찬송에서 옵니다(시63:5). 4)찬송은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줍니다(살전5:16). 5)찬송은 기적을 일으킵니다(행16:25, 26). 6)찬송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시56:11). 7)찬송은 앞이 캄캄할 때 빛으로 인도해주며 인생의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소망을 줍니다.

찬송은 한 인간의 생애만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바꾸어놓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찬송은 그 자체가 예배요,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찬송보다는 그 찬송을 부르는 우리를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찬송은 오락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도 아닙니다. 경쟁도 아닙니다. 찬송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찬송은 오직 어린양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정성이 없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아무렇게나 부르는 찬송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연락처: (714)699-0210

JoyLA.com
sale
주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32 Set 한정특가판매( 1set 12권)
기념타올 판촉물 신설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기폐 완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 : 가 ~ 납하스
2권 : 다 ~ 못
3권 : 못가 ~ 소위
4권 : 소유 ~ 오늘
5권 : 오늘날 ~ 종
6권 : 종교 ~ 힛데겔
7권 : 편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를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있도록 제작

CROSSWAYS!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o 크로스웨이 1권~5권
o 크로스웨이 사례집
o 크로스웨이 오디오CD
o 크로스웨이 수료증
o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47. 젊은 지구에 대한 10가지 과학적 증거를 마치며

## '진화' 의 반대는 '창조' 가 아니라 '성경' ...젊은 지구만이 해답
## 동성애, 안락사, 낙태, 학원폭력, 인종문제 모두 진화론의 결과

미국의 20대가 교회에서 사라졌다. 20%가 채 안 남았다는 보고는 조금 지난 뉴스다. 지금 한국의 10대는 4%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이렇다 할 원인과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한 것도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고, 성경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지구의 나이에 대한 것이다. 이 사실은 Beemer, Hillard, and Ham의 책 "Already Gone"(Masters Books, 2009)을 통하여 드러났다. 이 연구는 세상에서도 신뢰 받고 있는 미국 소비자조사 전문기관인 America's Research Group(ARG)의 도움으로 가능하였다. 이 책은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왜 그들이 반기독교적이 되었는지, 성적으로 더욱 타락하게 되었는지 등의 이유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다.

### 1. 지구 나이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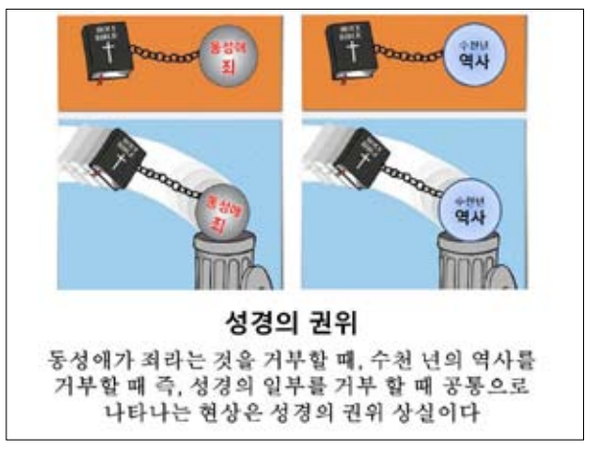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가장 중요한 항목인 지구의 나이에 대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란 입장을 취하여왔다. 수십억 년의 오랜지구를 믿건 수천 년의 젊은지구를 믿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도 구원받는 조건으로 젊은지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물론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지구의 나이 문제를 일부러 외면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에서 우리들끼리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야지 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편을 갈라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창조과학 사역을 하다보면 두 종류의 크리스천들을 보게 된다. 한 부류의 크리스천들은 신앙심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기 때문에 사실을 다루는 창조과학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의 간증을 통해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중요하고 또 믿어지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그렇지 않다. 믿음의 내용인 진리는 사실이어야만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성경에 기록된 한 부분이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질문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대답이 지구의 나이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요청하는 가르침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개인적인 구원만을 생각할 때, 당장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지구의 나이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도와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사명을 생각한다면 지구의 나이는 심각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나갈수록 성경의 사실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목사님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비껴가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고 듣고 있다. 부모님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혹은 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성경의 사실성에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 신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 2. 진화의 반대는 성경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진화'의 반대를 '창조'라고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무생물도 창조하시고 생물들도 창조 하셨다는 그 '창조'만 그냥 믿으면 진화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요즘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창조뿐 아니라 허구의 시대인 수십억 년의 지구 나이와 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진화의 역사도 함께 믿고 있다. 진화론 때문에, 성경의 창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창조이론들이 가르쳐지니 자연히 성경이 거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화'의 반대를 '창조'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진화'의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해야 제대로 말한 것이다. 수십억 년의 진화론은 결국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사실이 아닌 성경'을 믿고 있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거부할 때, 수천 년의 역사를 거부할 때 즉, 성경의 일부를 거부 할 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의 권위 상실이다

진화론은 성경의 사실성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진화의 역사를 믿으면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의 죽음과 고통의 원인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죄와 죽음이 상관없는 문제라라면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된다. 창조된 아담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진화가 사실이라면 첫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거나, 존재하지도 않았던 첫 아담을 대신해 마지막 아담이라고 자처하며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코미디가 되어버린다. 진화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죽음(화석)이 사실이라면, 창조하시면서 계속 좋았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선함과 전능함의 성품도 완전히 일그러지고 만다. 창조와 노아 할아버지의 지어낸 것 같은 이야기는 현재를 살고 있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화와 같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도 내 생애동안에는 절대로 오시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갖게 한다. 진화는 성경자체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인 죄와 죽음의 관계를 부정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 3. 오랜지구와 성경의 권위

동성애는 요즘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는 미국교회의 뜨거운 감자다. 동성애의 근원이 어디인가? 동성애 찬성론자들이 빼지 않고 꼭 지목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동물들을 보라'는 것이다.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동성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진화론이고 진화론의 근원은 오랜지구다. 동성애가 성경을 거부하는 자세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밖에도 가정파괴, 안락사, 낙태, 전쟁, 학원폭력, 인종문제 등 사회 구석구석에서도 어김없이 진화론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데 역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결과들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는데 수십억 년의 오랜지구는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다.

그러나 지난 칼럼들을 통해 10가지 젊은 지구의 증거들을 소개한 것처럼, 지구 역사가 수십억 년처럼 보이는 증거보다는 젊은 지구의 증거들이 훨씬 많다.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이 한때 진화론의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창조과학자들은 똑같은 연구를 통해 그 문제점들을 지적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구역사가 수천 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과학적 증거들을 발견하여 일반학계에도 보고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천 년의 짧은 역사는 사실이며 이 역사 속에서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분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여 주님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 고통의 불씨 하갈의 마음

하갈은 어떤 사연으로 여종으로 끌려오게 되었던지, 사라의 애굽출신 여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사이에 낳은 언약의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야가 오게 할 계획이 확고하셨습니다. 약속의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오는 과정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약속을 100%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 사라 부부에게 신뢰라는 테스트를 아주 힘겹게 진행시키시는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에게서 난 자라는 것만 생각하다 생각해낸 것이 첩입니다. 사라는 올라오는 모든 괴로운 심정을 누르며 집안을 위해 남편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려 첩을 제 손으로 두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쓰린 마음이 상상이 갑니다. 그녀를 자기 대신 씨받이 첩으로 남편에게 내어줄 정도이었으니 결코 사라와 하갈이 나쁜 관계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 아이를 갖게 되니 하갈은 태도가 돌변해 여주인 사라를 깔봅니다. 아무리 아이가 없다 해도 사라와 아브라함의 사랑전선은 막강한데 잘못 집었다가 큰 코를 다친 여인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신뢰하고 남편에게 첩 자리를 내어준 덕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 "종의 신분으로 아이를 가졌으니 제 아이는 여주인님의 아이입니다" 하고 겸비하게 여주인에게 순응했다면 더욱 사라의 신임을 얻고 사라와 자매같이 지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 종으로 안방마님을 밀어내려고 사라의 자리를 넘나보는 그 어미의 교만이 아들에게도 꼭 같이 넘쳐 이삭이 젖 뗌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눌 자리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고 이삭을 비웃다가 결국 집을 쫓겨나고야마는 비극을 맞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아니던가요? 교만해진 하갈은 자신이 얻고자 하던 욕망이 좌절되니 돌이켜 회개할 생각 없고, 다만 나나 너나 똑같이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는 일반이라는 평등론에 입각해 분하고 억울하게 독을 품으니 결과는 너무도 엄청납니다. 어미의 교만한 태도에서 보고배운 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다 아예 쫓겨나게 되는 고통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 여종의 아들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씨이기에 한 민족을 이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비록 서자라도 자식이라 맘이 아프긴 해도 냉정히 내쳐 집안싸움을 정리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낳음을 미끼로 주인의 자리를 넘보던 탐욕과 교만의 결과는 자신과 아들을 고생길로 몰아세웁니다. 자신의 잘못은 묻어두고 받은 피해의식 속에서 상처만을 붙들고 방성대곡하여도 아브라함의 연고로 하갈을 찾아와 "두려워 말라"고 다독거리시며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물가로 인도해주시고 살길을 터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갈입니다. 그 후로 계속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하시어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용사가 되고 모국 애굽 여인으로 짝을 지워주어 가정을 이루고 12방백이나 이루어 하윌라에서 앗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하나 하갈의 안방마님자리를 넘보던 싸움이 방대해진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간의 자리싸움으로 연결되어 아랍족속들과 이스라엘의 땅 전쟁은 여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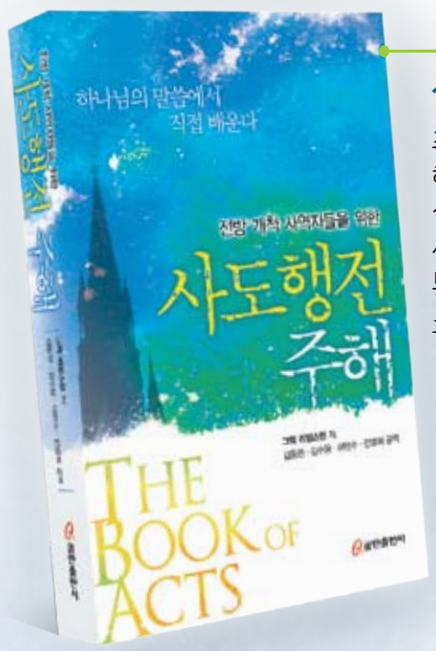
누구든 자신의 문제만 커 보여 권모술수로 남을 악하게 이용하는 그런 모습만 하나님이 보신다면 구원받을만한 인간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부른 고통일지라도 아픔가운데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을 복으로 받는 자는 어느 누구나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며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건져주니 보따리 챙기는 하갈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며 우리 주님의 그저 품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의 은혜의 강가로 염치없이 나아갑니다.

▲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변화하는 글로벌 선교**

소아시아에서 1세대 선교사로 26년간 사역했고 현재 GMS 선교훈련원장으로 미래의 한국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는 조용성 선교사의 글로벌 선교의 이론과 현장과 전략을 담은 책이다.
오늘날 선교의 이슈, 동향, 전략을 이슬람, 서구 기독교와 관계하여 예리하게 파악하고 균형있게 선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용성 지음 / 536면 / 20,000원 / 신국판 양장




**사도행전 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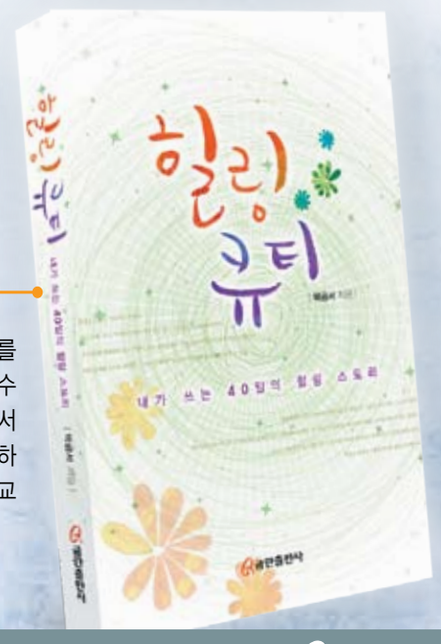
프론티어스(Frontiers) 창설자이자 총대표인 그렉 리빙스턴의 사도행전 주해서. 타종교 지역,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 개척하는 사역자를 위해 성령의 능력과 적용, 자비량 사역, 신학의 기초, 박해 등에 대해 사도행전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서 선교 사역자들에게 제자훈련 교재로서 소그룹으로 토의하기에도 훌륭한 책이다.

그렉 리빙스턴 지음 / 김동현, 김수용, 이현주, 전병희 공역 / 536면 / 20,000원

**사자성어로 된 복음행전**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구절을 사자성어(四字成語)화하여 해석을 달고, 관련 성구를 기록하여 성경 구절을 한자로 친숙하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도록 새롭게 시도한 책이다. 성경순 편집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한자를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김인식 편저 / 312면 / 13,000원




**힐링 큐티**

힐링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힐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힐링 멘토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책은 매일 한 테마씩 40일 동안 큐티를 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구성되었으며, 스스로 힐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하며, 구역공과나 팀모임 교재로도 좋지만 혼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다.

박공서 지음 / 342면 / 12,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쿰란, 쿰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쿰란출판사

# "유럽선교, 하나님의 소망이자 우리의 사명"

## 미션유럽선교회 주최 '2013 미션유럽컨퍼런스' 성료

프랑스 파리 근교 Kyriad Hotel 에서 열린 미션유럽컨퍼런스

2013 미션 유럽 컨퍼런스'가 미션유럽선교회(대표회장 임재훈 목사) 주최로 지난 7월 2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 근교 키리아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 컨퍼런스에는 '유럽선교 하나님의 소망, 우리의 사명'이란 주제로 유럽 전역에서 목회와 선교사역에 헌신하는 12개국 100명의 유럽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참석했다.

개회 첫날 '두 가지 생각'이란 제목으로 최복규 목사가 저녁 개회설교를 했으며 미션유럽선교회 이사장 조봉희 목사(목동지구촌교회)의 개회사, 박명하 목사(세계한인선교사회 대표회장)의 축사가 각각 있었다.

이어 대회 주제 발제 강사인 김경일 박사(NMWM 대표)는 '세계 선교동향과 유럽선교의 과제'란 주제로 현재 유럽교회의 몰락의 근본 원인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17-19세기 초에 일어났던 독일 경건주의 운동과 진젠도르프의 모라비안교회 24시간 기도운동, 그리고 웨슬리 감리교와 웨일즈 부흥운동을 통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제시하며,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 즉 영적 야성 회복을 통한 유럽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강조했다.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는 '디아스포라 목회의 영성'이란 주제의 강의에서 "목회자의 야성과 현장성의 상실, 그리고 시스템의 부재가 교회부흥의 큰 장애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만석 목사(한국 이란인 교회)는 '이슬람 세계화와 대치전략', 한정국 목사(KWMA 사무총장)는 '급변 하는 선교환경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한 현지 목회자들이 목회현장 속에서 체험된 유럽교회의 현상을 발제와 참석자 모두가 참여한 패널 토의가 있었다. 컨퍼런스 3박4일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온 집회 강사들인 임석순 목사(한국 중앙교회), 이재호 목사(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 김남수 목사(뉴욕 프라미스교회)가 각각 집회를 담당했다.

〈기사제공: 미션유럽선교회〉

워십리더수련회가 'Identity'라는 주제로 윌리엄캐리 인터네셔널 대학에서 열렸다

# 워십 리더 수련회 'IDENTITY' 주제로

## 영성 전문성 관계성 정리...그리스도 만나는 체험

워십 리더 수련회가 윌리엄캐리 인터내셔널 대학(총장 베스 스노텔리 박사)에서 'IDENTITY"라는 주제로 28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 남가주지역에서 찬양사역자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수련회는 개회예배, 메인세션& 소그룹, 비전 나누기, 자유 교제시간 등으로 진행했다.

은혜한인교회 김성아 전도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첫날 개회예배에서 박지범 목사(생수의강선교교회)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은혜는 나 자신은 변화되지 않지만 변화되는 모습을 미리 경험하는, 미리 맛보는 은혜와 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실제적 변화의 은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변화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았던 것들이 조상대대로 내려와 체질화돼서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오던 것을 주님으로 바꿔지는 것이며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해 그것이 우리들의 메모리 속에 저장이 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영성, 전문성, 관계성이다. 전문성은 우리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며, 관계성은 내가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영성은 예수그리스도가 영원한 방향성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기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번수련회를 통해 영성, 관계성, 전문성에 대한 정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수련회는 아름다운교회, 디사이플교회, 인랜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힌돌선교회, 은혜한인교회, 넥스트사랑의교회, 얼바인온누리교회, 동양선교교회 등에서 찬양사역자들이 참여했으며, 강명식 찬양사(예배인도자, CCM아티스트, 숭실대콘서바토리 현대교회음악과 주임교수), 박지범 목사(전 브라질 선교사, 남미워십 LAMP창립), 김재우 선교사(A.C.T.인터내셔널 예배예술선교사, 킹스리전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 APU 2013학년도 여름학기졸업식

## 한인 박사 3명, 한인목회학박사 이병호 목사 첫 졸업

APU여름학기 졸업식이 성황리에 열린가운데 3명의 한인박사가 배출됐다. 사진은 목회학박사과정을 졸업한 이병호 목사가 후드를 쓰는 예식을 하고 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 월레스 박사) 2013학년도 여름학기 졸업식이 26일 오후 4시 본교 팰릭스이벤트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27명의 박사학위과정 졸업자 중 3명의 한인이 박사학위과정 졸업을 했으며 이병호 목사(한빛성결교회)가 지난 2010년 개설된 한인목회학박사과정의 첫 번째 졸업생이 됐다.

이날 박사과정 졸업생은 목회학박사 1명, 심리학박사 16명, 교육학박사 8명, 철학박사 2명이 박사과정 졸업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299명의 석사학위 졸업생이 배출됐는데 17명의 한인이 석사학위를 받았다.

존 월레스 총장의 사회로 열린 졸업식은 스티브 메이스 목사(갈보리채플사우스베이 담임)가 'Time Is Runnung Out'(느6:15-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존 월레스 총장이 학위수여식 인도를 했으며 스테이시 챔파인 목사 축복기도로 졸업식을 마쳤다.

다음은 2013학년도 APU 여름학기 한인 졸업생 명단이다.

△박사: 목회학-이병호, 심리학-제니퍼구, 엘리자베스 박 △석사: 간호학-조지연, 하영정, 이장욱, 목회학-안문재, 장은진, 조현영, 최성민, 구몬관, 황도식, 김일호, 문동현, 라영탁, 소병헌, 교육학-김수연, 김현중, 심리학-제시리, 제이미표

〈박준호 기자〉

## 시사주간지 타임 보도

# 미, 사건사고로 죽을 위험 도시보다 시골이 높아

일반적으로 평온한 시골 마을이 번잡한 도시보다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라는 연구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사주간지인 타임 온라인판은 23일 출간된 응급의학연감에 실린 조사결과를 인용, 범죄든 사고든 부상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은 대형 도시 지역보다 시골 지역이 20% 높은 걸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1999-2006년 부상으로 숨진 129만 5천919건의 사망사건을 분석한 결과다.

물론 보통의 인식처럼 살인범죄로 숨질 위험은 지방보다 도시에서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살인사건으로 사망하는 비율보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을 비율이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다. 부상에 따른 사망자 중에는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방과 도시를 비교해보면 지방에서는 인구 10만명당 27.61건의 차량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도심에서는 10만명당 10.58건에 그쳤다.

타임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도심 거주자보다 차량을 더 많이, 오랫동안, 기준 속도 이상으로 과속 운전하는데 반해 도심거주자들은 걷거나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많다면서 이를 교통 사망사고가 지방에서 더 많은 이유로 들었다. 또 지방에 사는 이들보다 도심 거주자들이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걷는데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덕분에 건강상 이득을 본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번 연구 결과의 주요 필자인 미국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세이지 마이어스 박사는 "도시가 지방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지속돼왔지만 우리의 연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금요예배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718)279-2757, 2758, Fax.(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18)639-3021, Fax.(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목사관.(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야예배: 오후 8:45
Tel.(718)482-7788, Cell.(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Tel.(732)310-0022(교회), Fax.(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친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704)-841-0821, Fax.(704)8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303)-422-6950, Fax.(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영어): 오전 10시, (한어): 오전 11시
유치, 유년ㄴ부: 오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410)337-9448, 882-0181, Fax.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타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l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토,주일)
Tel.(410)203-0516, Fax.(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Tel.(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열린)
Tel.(253)535-6207, 531-8424
Fax.(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밤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253)536-6675, Fax.(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젊은이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az.com
Tel.(480)726-0191, Fax.(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 동부교계 게시판

east

## 풀타임 교육목사 청빙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담임 한일철 목사, KAPC교단)가 풀타임 교육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수 받은 영주권자(혹은 시민권자)로 이중언어로 설교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담당부서는 교육부, EM, 장년부이며 이력서, 졸업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추천서 2장(직접 교회로), 목회소견서, 최근 영어설교 CD 등이 필요하다. 마감은 8월 31일.

▲문의: revhanus@hotmail.com, 홈페이지 www.kpcgnc.com

## 2013년 윤동주 문학제

윤동주문학사상선양회 뉴욕뉴저지 지부가 주최하고 뉴욕한국문화원이 후원하는 이정록 시인과 함께하는 '2013년 윤동주 문학제'가 8월 12일(월) 저녁 7시 뉴저지 리지필드 한양 1&9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윤동주 문학사상선양회는 한국 종로구가 후원하며 미국에는 뉴저지, 뉴욕, LA, 유타, 아틀란타, 샌프란시스코 등 7개 지부가 있다. 윤동주 문학상은 윤동주 시의 근본정신인 민족사랑, 자유, 인간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평화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윤동주 문학상은 이정록 시인이 '영혼의 거처 외 10편으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정록 시인은 1964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으며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를 졸업해 현재 천안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문학제에서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미주 서시 문학상과 계간 '서시' 해외 신인상 수상식도 있을 예정이다. 미주 서시 문학상 우수상에는 조성자 시인이 선정됐고 계간 '서시' 해외신인상에는 김명한씨가 수상, 등단한다.

▲문의: (201)788-7255

# 정관통과·이단사이비 관계 뉴욕교협 대표

## 뉴욕교협 산하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모임

뉴욕교협 산하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 산하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회장 최창섭 목사)가 지난 26일 모임을 갖고 정관을 통과시키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최창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임재홍 목사(서기)의 회원점명 후 전 회의에서의 결의사항을 낭독한 후 곧바로 정관 표결에 들어갔다.

뉴욕교협 산하기관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세칙'은 교협 헌법 제5장 제 15조를 참조할 것을 명시했다. 동 협의회는 미주내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단체 및 행사에 뉴욕교협을 대표해 활동하게 된다.

1장 총칙에는 명칭, 위치, 목적, 조직을 명시하고 조직은 교협산하 각 교단(총회)에서 파송되는 1인의 대표들로 구성돼 임기는 3년이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2장 임원은 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 1인씩 돼 있다. 임기는 3년이나 회원 임기 동안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3장은 임무, 4장은 회의, 5장 재정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재정은 뉴욕교협 회원교회와 본 회의 활동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되 후원 이사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창섭 목사는 "일단 세칙을 만들었다. 앞으로 협의회가 확대되면 때에 따라 구체적인 세칙을 첨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정마련에 대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우선 교협으로부터 후원금(1천 달러)을 받기로 했으며 각 교단에 후원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또 이단대책 책자를 만들어 각 회원교회에 배부함으로 후원의지를 이끌어내자는 의견도 있었다.

회의에 앞선 경건회는 최창섭 목사 인도로 기도 박마이클 목사, 설교 이성헌 목사, 축도 박맹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성헌 목사는 마태복음 7장 20-27절을 본문으로 "각자가 육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를 깨달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름만, 직책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협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한준희 목사의 마침기도로 마쳤다.

이날 참석자는 최창섭 목사, 유상열 목사, 임재홍 목사, 이성헌 목사, 김상태 목사, 박맹준 목사, 한준희 목사 그리고 교협총무 현영갑 목사가 참석했다(무순).

〈유원정 기자〉

북미원주민연합선교 파송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김기호 목사, 그 옆이 김종훈 목사.

# 2013 북미원주민 연합선교 파송기도회

## 뉴욕교협 원주민선교분과 중심...총380명 9개 지역서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 원주민선교분과(위원장 김기호 목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2013 북미원주민 연합선교가 지난 28일 선교출발 일주일을 앞두고 뉴욕신광교회(한재홍 목사)에서 파송기도회를 가졌다.

뉴욕교협이 처음으로 주관하게 된 이번 파송기도회는 김기호 목사 사회로 김종훈 목사가 고린도후서 5:14-19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설교 후 뉴욕순복음연합교회의 수화찬양, 연합팀의 국악공연, 뉴저지 연합팀의 부채춤 등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이어 하이라이트 기도회가 진행됐다. 전체 선교를 위한 기도, 9개팀(순) 순장들을 위한 기도, 지역별 이날 축도는 뉴저지교협 선교분과 부위원장 김종국 목사가 맡았다.

올해 북미원주민 선교는 8월 4일(주)부터 10일(토)까지 미네소타 5개, 위스콘신 3개, 뉴욕북부 1개 지역 등 9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참가인원은 뉴욕 235명과 뉴저지 130명 등 총380여명이다. 이외에도 북미원주민 보호구역 인근 한인교회에서도 동참 의사를 밝혀왔다. 미네소타 지역은 주일 오후, 위스콘신 지역은 주일 오후에 버스로 출발한다.

〈정리: 유원정 기자〉

사랑의캠프 참가자들이 이노비 공연에 흠뻑 빠졌다.

# 밀알 '사랑의 캠프'에 이노비 공연

밀알장애인선교단(단장 김자송)이 주최한 "사랑의 캠프"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다. 특별히 이번 캠프 중 26일 저녁 8시30분부터 비영리단체 이노비(EnoB, 대표 강태욱)가 "EnoB Let's Play with Music and Arts"를 열어 300여 참석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노비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눈높이 맞게 신나고 경쾌하게 편곡된 뮤지컬 곡을 4명의 싱어가 키보드, 베이스기타, 드럼 반주에 맞춰 연주해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 한계를 잊어버리고 음악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흥겹게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노비 강태욱 대표는 "이노비가 평소에 찾아갈 수 없었던 비교적 먼 필라델피아나 워싱턴지역에서 온 장애인들이 작년 공연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등 좋은 반응이 많았다"며 "이런 좋은 기회에 꾸준히 찾아오고 싶다"고 전했다.

사랑의캠프는 매년 여름 미주 동부지역 연합으로 열리는 뉴욕, 뉴저지, 워싱턴, 필라델피아, 토론토 지역의 장애인들을 모두 아우르는 연례행사다.

〈기사제공: 이노비〉

# 뉴욕나눔의집 새이사장에 박희소 목사

## 이사회, 부이사장엔 장석진 목사 선출

뉴욕나눔의집 이사회 참석자들.

미동부 한인노숙인 비영리전문기관인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지난 17일 이사회를 갖고 새 이사장에 박희소 목사, 부이사장에 장석진 목사를 선출했다.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이사회 1부 예배는 박성원 목사 인도로 이광희 목사의 기도에 이어 장석진 목사가 "함께 세워가자"(눅 3:7-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축도는 황영진 목사가 했다.

2부 회의시간에는 나눔의집 진행경과보고 및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독회복모임: 9월 5일(목) 저녁 7시 △개원 2주년 기념 쉘터 기금마련 후원의 밤 콘서트: 11월 3일 △나눔 일일 찻집: 12월 2일(토) 등을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박성원 목사, 장석진 목사, 박진하 목사, 이광희 목사, 황영진 목사, 박진수 전도사, 장영숙 권사 등이 참여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11월 후원자 초청만찬·후원약정서 배부 등 결의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The Bread and Gospel of Eastern America Inc., 회장 박진하 목사)가 지난 25일 7월 월례회에서 오는 11월 후원자 초청의 밤을 열기로 결의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일간지 돌출광고 시작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설립자 이원상 목사)에 명칭변경 항의 △2013년 200명 후원아동 결연 목표달성을 위해 이사회 구성 △각 후원교회와 지역사회에 후원약정서 배부 △비영리단체 텍스공제에 따른 2013년도 텍스보고 △2013년도 후원자 초청만찬: 11월 10일(주) 오후 6시 뉴욕 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

특별히 일간지 광고는 7월말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며, 새 후원약정서는 8월 월례회에서 배부키로 했다.

또 후원자 초청만찬은 8월 월례회에서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보고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임병남 목사 인도로 기도 박진하 목사, 설교 권캐더린 목사, 축도 유상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캐더린 목사는 마태복음 6장 1-4절을 본문으로 "히브리어 키스(포켓), 코스(쾌락), 카스(분노)는 사람 됨됨이 측량의 3가지인데, 이중에서 포켓은 재물, 즉 물질관을 의미한다.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 성경은 외식을 경계하라고 하는데 특히 구제, 기도, 금식할 때 중요하다. 기아대책은 나에게 이익이 없지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구제다. 외식하지 말고 오직 주님 섬기듯 떡과 복음으로 굶주린 어린이들을 섬기자"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6.25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다양

## LA다저스구장 한국전 참전용사 시구, S.S.레인빅토리 호 크루즈 행사

6.25한국전쟁 정전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왼쪽은 S.S.레인 빅토리호에서 열린 한국전 정전기념행사, 오른쪽은 다저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및 재향군인들이 시구하는 모습과 류현진 선수와 추신수 선수의 경기)

6.25전쟁 정전 6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7일 LA다저스야구장 및 샌피드로 항에 정박된 레인빅토리 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정전 60주년 기념추모 항해 행사는 샌피드로 항을 출항해 카탈리나 섬까지 다녀오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8시간이 넘는 항해 동안 추모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S.S. 레인 빅토리 호는 한국전쟁 당시 원산흥남 철수작전에 투입돼 7,010명을 구출하는 등 큰 활약을 펼친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찬양사역자 이수정 집사(러브위스퍼)가 미국국가와 애국가를 불렀으며, 오전 10시 샌피드로 항 인근 해상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용맹성과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정전 60주년 기념 및 추모식이 거행됐다.

한편 오후 6시10분에는 LA다저스 구장에서 지정한 패밀리데이에 열린 LA다저스와 신시네티 레즈와의 경기가 시작되기 전, 한국전 참전용사를 비롯한 재향군인 소개 및 시구를 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시구자로 나선 재향군인들을 소개할 때 관중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등 전쟁영웅들을 뜨겁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저스의 투수 류현진 선수와 레즈의 추신수 선수의 맞대결로 관심을 끈 이날 경기는 6만 명을 수용하는 다저스 구장에 5만6천여 명이 운집해 큰 관심을 모았다. 경기장 관중석에 태극기와 태극부채를 든 한국인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자리했으며 류현진 선수를 응원하는 문구가 새겨진 응원도구들이 선보여 다저스 구장을 찾은 타인종 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ANC온누리교회, 올림픽장로교회, LA연합감리교회, LA언약교회, 행복한교회 등 한인교회들이 단체관람을 하며 한인선수들의 꿈의 맞대결과 한국전쟁 정전 기념행사 등을 함께했다.

〈박준호 기자〉

LA한미음악협회(LAKMA)가 주최한 탈북고아돕기 평화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 2만달러가 한-슈나이더재단에 전달됐다.

# LAKMA, 한슈나이더 재단에 2만불 전달

## 탈북고아 돕기 후원연주회 통한 모금포함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대표 아더 한)에 LA한미음악협회(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 이사장 최승호, 이하 LAKMA)가 지난 25일 오전 10시30분 가든스윗호텔에서 탈북고아 돕기 성금전달식을 가졌다. 이 성금은 지난 12일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린 탈북고아 돕기 '평화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것으로 모금액은 북한 고아들의 식료품과 의료품 구입비로 쓰이게 된다.

성금전달식에서 최승호 이사장은 "보다 많은 모금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모금된 금액보다 탈북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행사를 가진 것이 뜻 깊었다"고 말하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한인들 외에 타인종들과도 함께 모금행사를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앞으로 한슈나이더 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뜻 깊은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AKMA 음악감독 윤임상 교수는 "이번 평화음악회는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의 좋은 사역을 홍보하고 펀드를 조성해 성금을 전달하며, 6.25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고 휴전 60주년을 기억하도록 했으며, 다민족이 함께 베르디 음악으로 하나가 됐다. 우리민족이 주체가 돼 음악으로 하나가 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 말했다.

윤 교수는 "이번 평화음악회는 합창단 90명중 한인 48명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민족이 참여했으며, 오케스트라는 64명중 한인 8명이, 독창자는 총 4명중 한인 3명이 참여했다. 1700여명의 청중중 3분의1 이상이 타인종들이었다. 한인이 연주하는 곳에 타인종들이 찾아와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던 것은 큰 상징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 순수모금액은 1만1천 달러다.

〈박준호 기자〉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주최 정신건강세미나가 미주평안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감정조절, 미리 훈련하라" 강의

## LA카운티 종교지도자초청 정신건강세미나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개최한 종교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25일 오전 10시30분에 성황리에 열렸다.

16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안정영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정신건강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강사로 나서 '감정조절법'에 대해 강의를 인도했다.

안정영 코디네이터는 "감정은 특정 자극이나 특정 상황에 신체적, 생리적 반응의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설명하고 "감정은 인간과 동물, 자연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위험이 존재하고 즐거운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뇌에 보내는 물리적인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정조절법은 1단계-감정을 표현한다, 2단계-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감싸고 용기를 줘라, 3단계-감정조절법을 미리 찾아 훈련해 둔다"로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다우니남부지역에 새예배처소로 이전한 말씀새로운교회

# 말씀새로운교회 새 성전 입당

말씀새로운교회(담임 김회창 목사)가 예배 처소를 옮겨 지난 28일부터 새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새 장소는 105번 프리웨이와 다우니 애버뉴가 만나는 다우니 남부지역(13376 Downey Ave., Paramount, CA 90723).

한국어 예배는 오후 12시45분, 주일 영어예배는 오전 10시에 래리(Life Gate-Larry Jameson) 목사가 담당하며, 토요일 새벽 6시30분에 새벽기도회가 있다.

담임 김회창 목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핵심을 강조하는 설교로 목회와 신학대학원(ABSW, UCS) 강의를 균형 있게 인도하고 있으며, 방송설교와 중보기도의 시간 인도 등으로 한인사회에 알려져 있다. 또 김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기독장교회 회장으로 지역사회를 섬겨왔으며, 이민사회에 갈등을 풀어주고 치유하고자 노력하는 목회자다.

현재의 코리아타운의 예배처소(2975 Wilshire Blvd., #415, LA)는 앞으로도 계속 상담실과 경건운동 강화에 사용한다.

▲연락전화: (213)268-9367

〈기사제공: 말씀새로운교회〉

# 서부교계 게시판

west

### 김수영 수필집 출판기념회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는 김수영 회원의 수필집 "늘 추억의 저편" 출판기념회를 8월 10일(토) 오전 11시 만리장성에서 개최한다.

▲문의: (213)249-0771, (310)612-9580

### 제12회 KCCD 주택구입 박람회

KCCD(회장 임혜빈)이 주최하는 제12회 주택구입박람회가 8월 3일(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한다.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문의: (213)985-1500

### 강내우 교수초청 힐링 콘서트

LA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는 테너 강내우 교수(순복음영산신학원 교수, 버금뮤직아카데미 대표) 초청 힐링콘서트를 2부 예배시간(오전 10시30분)에 갖는다.

▲문의: (213)351-9975

### 뉴비전 장학생 모집

뉴비전교회(담임 이진수 목사)는 차세대 영적지도자 육성을 위한 2013-2014년도 뉴비전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신학대학/대학원 재학생으로 영어권 한인차세대를 위한 목회자이며 신청마감은 8월 27일(화)까지.

▲문의: scholarship@newvisionchurch.org

### 캘리포니아개혁신학교 입학설명회

캘리포니아개혁신학교(학장 최영치 박사) 입학설명회가 8월 10일(토) 오후 2시에 열린다.

▲문의: (408)498-5721

### 퍼스펙티브스 산호세 286기 선교훈련

퍼스펙티브스 산호세 286기 선교훈련이 세계선교침례교회(담임 고상환 목사)에서 8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갖는다. 등록비는 300달러이며 교재비는 50달러다.

▲문의: (408)701-7036 안성일 목사

### 교역자 청빙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는 한어청년부를 섬길 하프타임 혹은 풀타임 교역자와 중등부(6-8학년) 담당 풀타임 교역자를 청빙한다. 지원자는 이력서와 신앙 간증문을 교회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408)263-5100 Ext.#3 이종희 전도사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계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예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TEL. 800.347.7057
워싱턴DC 지사 TEL. 800.228.2928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hilshire Blvd. #228, L.A., CA 90010

## 서울국제성시화대회 10월 16일 개막

# "성시화 물결, 서울서 세계로"

2013 서울국제성시화대회가 오는 10월 16-18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에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 주최로 열린다. 대표회장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맡았다.

전용태 공동총재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설명회 및 기도회를 갖고 2013 서울국제성시화대회 일정을 발표했다. 대회는 10월 16일 오전 2013명으로 구성된 여성메시아합창단이 헨델의 '메시아'를 부르는 감사예배로 시작한다. 같은 날 오후 환영 리셉션과 성시화대회가 열린다.

성시화운동 지도자들은 17일 서울 합정동 양화진외국인선교사 묘원과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를 탐방한 뒤 오후 4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임진각 기도회에선 노란 리본 달기, 주먹밥 먹기 등 통일기원 행사를 하고 끊어진 다리에서 평화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북한성시화 전략도 발표한다. 18일 오전에는 세계성시화지도자전략회의를 갖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한다.

이날 설명회 및 기도회에는 황우여 국회조찬기도회 회장과 권태진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진 의회선교연합 회장, 양인평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 등 교계 지도자 300여명이 참석했고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가 설교를 맡았다.

전 총재는 "올해 대회는 국내외 성시화운동 지도자 1000여명이 참가해 '평화의 물결, 한반도를 덮게 하소서! 성시화의 물결, 서울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이 땅의 성시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시화운동은 16세기 칼뱅의 제네바 성시화운동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시작돼 현재 서울과 대구,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국내외 70여개 도시에 성시화운동본부가 조직돼 있다.

#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 … 평신도들이 나섰다

## 평대위 창립예배 및 대회 갖고 본격 활동 시작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평신도 대책위원회'(평대위)는 29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예배 및 대회를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평대위는 한국장로회총연합회와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기독교대한감리회장로회전국연합회 등 4개 평신도 단체로 구성됐다. 평대위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연세대의 기독교 전통을 지키고 이어나갈 것과 원래 정관으로의 복귀, 교육부의 정관변경 승인 즉각 취소, 설립정신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오늘의 불행한 사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연세대를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순전한 헌신을 해야 할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놓아버린 죄가 먼저임을 고백한다"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한국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전통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평대위 상임위원장에는 이태영 장로, 공동위원장에는 조석환 박경진 심영식 김형원 장로가 각각 취임했다. 창립예배에서는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가 '야곱의 오기'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태영 상임위원장은 "연세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그 뜻을 소중히 받든 선교사들의 헌신이 맺은 거룩한 열매"라며 "연세대를 지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이사회는 2011년 10월 정관을 개정, 예장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 등 4개 교단에서 이사를 파송받던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평대위는 각 교단 총회와 수련회 등을 방문, 연세대 문제를 설명하고 서명운동과 순회기도회를 벌일 계획이다.

# "참전용사 고귀한 희생 감사"

## 새에덴교회, 평화기원 예배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는 28일 교회 본당에서 6·25 정전, DMZ지정 60주년기념 UN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평화기원예배를 갖고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소강석 목사는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 걸고 싸워주신 참전용사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여러분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교했다.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은 해외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스무 살에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조지 프레더릭 드레이크(미국)씨는 "초청에 감사드린다. 발전한 한국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크리스 젠트리 주한 미8군 부사령관은 유엔사와 주한미군을 대표해 "미국과 한국 양국은 자유 평화를 위해 함께해 왔고 앞으로도 협력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예배에는 미국 호주 등에서 온 200여명의 국내외 참전용사를 비롯해 황우여 손인춘 백군기 국회의원, 신효범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새에덴교회는 25-30일 경기도와 함께 국내외 참전용사를 초청해 판문점 견학 등 보은행사를 열고 있다.

# 신천지, 포교위해 타기관 사칭 증거 나왔다

## 행정관청과 대학, 언론사 등 명칭 로고 무단 사용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포교를 위해 서울시와 연세대, CBS 등 행정관청과 대학, 언론사 등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신천지가 전도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타 기관을 사칭해 설문조사를 한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구체적 증거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가 28일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로부터 입수한 신천지의 '심리검사의 타당도에 관한 설문지' '도형분석을 통한 적성 성격 심리 분석 및 상담' '20대의 나' '도형심리상담' '선교활동을 위한 스피치 평가서' 등에는 서울시창업지원센터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리더십센터 한국애니어그램협회 CBS 세계선교공동체 등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일부 문서에는 '보안문서이므로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는 신천지 특유의 경고문이 적혀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신천지가 대학 연구진을 사칭해 포섭 대상자에게 위장 상담프로그램을 위한 가짜 서약서까지 쓰게 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로고가 찍힌 서약서에는 '본교는 독일 튀빙엔대와 체결한 TBYS-NC-13프로그램의 시범운영기간을 7개월 간 갖는다. 참가자는 모든 과정을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피해발생 시 모든 책임과 법적 조치를 감수한다'고 명시했다. 이곳에 명시된 7개월간의 프로그램은 신천지 교육을 뜻하며 외부누설 금지조항은 성경공부를 비밀로 하기 위해서다. 신천지는 또 실제로 있는 단체와 명칭이 유사한 한국애니어그램 상담연구소나 도형상담연구소 등의 이름을 걸고 포교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세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에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학 로고와 이미지를 도용한 행위에 대해선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선교공동체 관계자도 "선교활동을 위한 스피치평가서는 받지 않는데 누군가 우리 이름으로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설문지에는 이름과 나이, 거주지, 종교, 학교·직장, 혈액형, 가족사항,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해 놨다. 이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숨기고 포교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습득하기 위해서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신천지에서 4년간 활동하다가 탈퇴한 김모(29)씨는 "신천지 신도들은 영혼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짜 로고가 찍힌 설문지를 활용한다"면서 "일례로 신천지가 연세대 상담원으로 사칭할 땐 학내 연구소 근처에서 만나며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가짜 명함까지 제작할 정도로 치밀하고 대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신현욱 구리상담소장은 "성경구절을 제시하며 거짓말 전도를 정당화시키는 신천지의 교리를 계속 배우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결국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우암의 박기준 대표변호사는 "대학이나 해당기관이 로고나 상표를 무단으로 쓰지 못하도록 공지한 뒤 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관계자는 "신천지에선 절대 그런 일 안 한다"면서 "속이면서까지 포교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도 말라"고 반박했다.

# 탈북자들 북한 종교박해 폭로

## "지하교회 세우고 신유기적 일어나자 체포, 10년 수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금지된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세우고 섬겨 온 이들의 증언이 공개됐다.

2011년 탈북한 김은사(여·62)씨는 2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정의연대·북한인권개선모임 주최로 열린 '북한의 종교박해 실태고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실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을 폭로했다.

김씨는 "구한말부터 믿음을 지켜온 3대가 목회자인 그루터기 기독교집안으로 할아버지에게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약사자격을 취득한 뒤 전도를 위해 지방을 다녔다"며 "신앙이 있는 자는 1년간 지켜 본 뒤 사명을 맡기는 등 북한 11개 지역에 지하교인 지도자를 120여명 양육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청각장애인을 치료해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나면서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10년간 수감됐다"며 "현재 북한의 고위직에도 그루터기 신앙을 이어받은 지하교인이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또 탈북자 안인옥(여·48)씨는 "1997년 지인에게 성경을 전해받고 남편과 함께 읽으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이후 지하교회를 조직하고 성도명단과 십일조를 중국교회에 보냈다. 명절 등 모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밀 기도모임을 자주 가졌다고 밝혔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으로 평양칠골교회 전도사로 2년간 봉직했다는 한정화(여·44)씨는 이날 평남 개천의 11호 종교수용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함께 있던 기독교인들이 총살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11호 종교수용소는 1955~63년 김일성이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비밀리에 기독교인 등 종교인들을 수감했던 곳이다.

한편 이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소장 윤여상)가 밝힌 '2012 북한의 종교자유와 박해실태' 자료에 따르면 2007-2012년 7월 입국한 탈북자 7481명 중 6963명(99.6%)은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중 1.2%(89명)는 북한에서 종교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5.1%(366명)는 타인의 비밀 종교활동을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북한에서 성경을 본 경험이 있는 탈북자 비율은 4.1%(290명)에 달했다.

### 재탈북 김광호씨 가족 등 11명 제3국 도착

재탈북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김광호씨 가족 5명이 중국 국경을 통과해 제3국의 안전가옥에 도착했다고 탈북지원기독교단체 등이 밝혔다. 김씨 가족과 같은 은신처에 머물다 체포돼 함께 조사를 받던 탈북자 6명은 이미 지난 24일 제3국에 도착했다.

탈북자 구출 및 보호활동을 해온 NK.C 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목사)는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3-14일 체포된 김광호씨 가족 5명 등 탈북자 11명이 지난주에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 변방에서 석방돼 딴 곳으로 이동했다고 현지 믿을 만한 기관의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송 목사는 "이동한 지역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동남아 지역에 각각 도착해 한국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 여성 군종목사 생긴다

## 2018년까지 육해공군에 14명…기독교 8명

국방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14명의 여성 군종장교를 배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군별로는 육군 9명, 해군 2명, 공군 3명이며 종교별로는 개신교가 8명, 불교가 6명이다. 여성 군목이 배출되는 것은 우리 군 사상 처음이다. 천주교는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아 여성군종장교 선발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 군종장교 배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추진됐다"며 "여성 성직자들이 장병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군종장교 선발기준에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군종장교 선발시험을 고시할 때는 응시대상을 '대한민국 남자'로 제한해왔다.

예장 통합 군농어촌선교부 서광욱 총무는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고, 여성 ROTC 장교도 배출됐다"며 "여성의 사회진출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자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난의 대안인 만큼 여성군종목사 배출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여성군목 도입으로 여성안수를 시행하는 교단이 군 선교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군종장교를 배출하고 있는 11개 교단 중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이다.

#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 | | | |
|---|---|---|---|
| 미 국 | $100 | 유 럽 | $190 |
| 캐나다 | $110 | 남 미 | $190 |
|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 아프리카 | $190 |

| | |
|---|---|
| 신 청 유 형 | ☐ 본인구독<br>☐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
|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 한 글 : 목 사 ☐<br>영 어 : 평신도 ☐ |
| 배 달 주 소 | |
| 전화/Fax | ( )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받는분 이름 | 한글 영어 |
| 전화번호/Fax | ( ) ( ) |
| 배 달 주 소 | |
| 교회/기관명 | |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선교 편지

### 파푸아뉴기니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세 부족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까이루꾸 전 지역의 연합교회 모임에서 함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사역을 진행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들과 함께 한 주간 수련회를 하면서 그동안의 소식을 나누고 함께 각 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축복이었습니다.

와이마 부족 어린이들과 함께

와이마 부족을 방문하여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당을 채우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앞으로 부족을 위해 귀한 사람들로 키워주시길,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도하였습니다.

구약번역을 위해 새로운 팀이 보강되어 구성되었고 이제 차근차근 초역이 마쳐진 부분을 가지고 수정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와이마 신약성경 봉헌후 다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구약번역팀에 합류한 아이히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꾸뿌, 우꼬, 아이히 바루루, 콜린 등 사역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부탁을 드립니다.

나라 부족, 가바디 부족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며 그동안의 안부를 주고받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나라 부족의 번역팀 총 코디네이터였던 보에에게 어려움이 생겨 데이시가 새롭게 역할을 맡았으나 19살 먹은 딸이 갑자기 죽는 일이 생겨서 일이 주춤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가바디 부족의 번역 코디네이터였던 아로 추장은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자기 마을을 오고 가는 일을 중단하여 번역에 진전이 없이 번역자인 마오니가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만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서 사역을 잘 해보자고 다짐하는 부족마을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면 저

희도 새롭게 마음가짐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가운데서도 가족들을 돌보며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해온 사역자들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동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누구보다 이 사역을 책임지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함이라"(고후4:7)

이번에 이곳 파푸아뉴기니 총회(3월 18일-28일)의 주제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질그릇인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격려가 되고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참 빛 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겸손과 신실함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빛 되신 주님께서 저희가 섬기는 종족 가운데 마음껏 비추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

-3년 동안의 본국사역 후 다시 파푸아뉴기니에 돌아와서 서서히 재적응 할 수 있도록 은혜주심에 감사

-지난 25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 동역의 길을 걸어오신 동역자들과 가족들의 헌신에 감사

-와이마, 나라, 가바디 부족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

기도

-우리부부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육간 강건함으로 현지 동역자들을 섬기도록

-앞으로 몇 달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각 부족의 언어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딸 가정들이 늘 성령충만 가운데 거하도록

파푸아뉴기니 까이루꾸에서,
김남수 이덕신 선교사 올림.
이메일: ns-ds.kim@sil.org.pg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여성은 노래하면 안 되고, 오락이나 기분전환을 위해서 모일 수 없다. 여성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출연하면 안 되며, 창문이나 발코니에서 자기 몸을 보여서는 안 된다. 밝은 색의 옷을 입어서도 안되고, 여성은 남성의 절반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 단독으로는 고소할 수 없다.

대표적인 이슬람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여성들은 투표를 해본 일이 없다. 여성이 운전하면 경찰에 체포당한다. 이런 세상에 살고 싶은가?

이슬람권에서 여성할례제도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자.

세계여성들을 분노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권의 여성할례제도다. 이슬람권에서는 여자에게 할례를 명한다. 성경의 할례는 언약의 표이지만 또한 많은 유익이 있다. 이슬람의 여성할례는 정반대이다.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도 하에서 여러 아내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본다. 여성할례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28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수단에서는 90%, 이집트는 80%, 에티오피아는 90%, 지부티는 98%, 나이지리아는 50% 이상의 여성들이 할례를 받는다. 아프리카를 포함한 22개국에서 1억3천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할례를 이미 받았으며 매년 시술을 받는 여성들의 수가 2-3백만 명이며 하루에만 6천명정도의 여자아이들이 할례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보고됐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여성할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행해진다.

이슬람권에서 일부다처제의 근절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슬람권에서는 일부다처제도가 합법화돼 있다. 무함마드는 10명의 아내를 얻었다. 일반적으로는 4명까지는 얻는 것이 허용된다(꾸란4:3 김용선 역). 영국 같은 기독교 문화권에서조차 2008년 초부터 일부다처를 얻을 수 있는 무슬림들만의 특권을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이제는 기독교의 안마당까지 들어온 셈이다.

어디 기도제목이 이것뿐이랴!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기도제목을 모아서 정리하면서 세계교회가 이슬람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잠자고 있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회개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오디게아교회의 모습이다. 겟세마네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너무도 편한 잠을 자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세 번이나 깨우러 오셨음에도 또 다시 깊은 잠을 정신없이 자고 있는 세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너무한 것일까?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방지일 칼럼

## "본대로 들은 대로"

### 1. 오직 한 일

본지가 이번 호부터 연재하는 "본대로 들은 대로"는 한 세기에 걸쳐 한국 기독교/선교의 산 증인이며 대표자인 방지일 목사의 저서 "본대로 들은 대로"를 연재한다. 1996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한 "본대로 들은 대로"는 2006년 27권까지, 각 편에 100여개의 이야기가 실려 총 2700여 이야기가 실려 있다. 본지는 그 중에서 뽑아 게재하며 각 이야기마다 권수와 연도를 밝힌다. 1911년 평북 선천에서 태어난 방 목사는 중국선교사로 21년간 사역했으며 1957년 귀국, 영등포교회에서 시무하다가 79년 원로목사로 은퇴했다. 이 지면을 통해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른 목회관, 교회관, 역사관, 구속관 등 폭넓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편집자주]

매를 훈련시켜서 꿩 잡는 오락도 그럴듯하다. 혹 좋은 운동, 지나친 운동이라고도 하겠다. 나도 그런데 따라가 본 일이 있다. 사냥개가 돌아다니며 꿩 있는 것을 찾아 날린다. 그 때에 매를 놓아주면 쏜살같이 날아가 꿩을 두발로 꽉 잡고 떨어진다. 쫓아가서 그 꿩을 매에게서 빼앗는다. 매가 꿩을 차가지고 떨어지는 지점으로 달음질하여 갈 때에 높고 낮은 것이 구별되지 않는다.

막 달리고 뛰어내리는데 옷이 찢어짐은 예사고 몸이 상하기도 하나 그 재미며 그 오락은 대단하다. 꿩 한 마리가 날을 때는 외상없이 매가 잡는다. 그러나 두 마리 세 마리가 날 때는 그만 다 놓치고 만다. 이것을 쫓거나 저것을 쫓는데 그만 하나도 못 잡는 것을 친히 보았다.

이런 원칙이 우리 생활에 어느 모로도 주는 교훈이 있다. 더욱 주께 몸 바친 헌신자로서 "오직 한 일" 복음 사명만 감당하여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교회 일을 하려면 그 지방의 일도 자연히 관계하게 된다. 봉사할 일은 해야 할 것이기도 하다. 혹 내 이만한 연륜으로 지나보는 대로 어떤 분들은 본 말을 뒤집어 하는 양상을 보기도 한다. 사회활동을 한다고 이일 저일 그 외 관여하는 일도 많기도 하다. 호사가는 더하다. 우리 환경에서는 군 경 면으로 조직도 있고 하니 거기 무관할 수야 없겠지만 그런 일에 몰두하는 이들도 있다. 행정기관과 밀접하게 지내는 것도 지역사회의 공헌이기는 하나 그의 본 일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으리만치 가지 같은 일에 더 치중하니 그만 자기 농토는 묵혀두는 정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를 자랑으로 함도 들어본다. 확실히 본 말을 거꾸로 하는 셈이다.

나는 본 제하에 이 말이 주되는 말이 아니고 때론 교회 소개 초청을 받는다. 그래 소개했는데 잘되지 않음을 여러 번 당하였다. 후에 들리는 소리로 부임하려는 과저에 조건을 먼저 제시한다. 학업을 꼭 닦아야 하겠노라는 제의를 면담 때 하므로 교회로선 전임역군을 원하여 초청하려는데 두 가지 일로 부임하겠다는 요청이 되어 그만 확정이 되지를 못하는 경우를 여러 번 들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이 한마디라도 한번 글로 기록에 남겨두고 싶어서이다.

저기 본 역사를 맡음에 거기 다른 조건을 제시함은 실로 예조차 없는 일이다. 지금은 좀 없어진 듯 하지만 내가 중국에서 돌아와 보니 대개 교역자들이 목회하면서 대학에 진학함을 보았다.

이력서에 보면 모모대학을 졸업하였는데 학사편입이라 제삼학년에 편입해서 졸업했다. 문교부 학사명단에는 없는 학사도 있다. 학사편입의 실 자격이 없을 때 편의상 편입하는 양 함이나 그것이 아니라 청강생 같이 지냈는데도 졸업 때는 가운도 입기는 하였고 형식상으로는 졸업인데 문교부에 그 등록은 없다. 의당 그럴 것이다. 학위 얻음이 좋기도 하지만 이런 식은 곤란하다. 또 석사학위도 얻었는데 그런 식이라면 자신이 속은 것인데 알면서 속는지 간판을 얻기 위함인지 이런 일은 성직자로서 하지 않아야 한다. 교역도 제대로 못한다.

학업도 실력 있게 닦을 수는 없다. 공부를 못하는 목사라고 교수들도 당면해서는 그저 지나가나 뒤로는 아주 혹평을 한다는 말도 들었다. 한 일만 해야 한다. 꿩 두 마리가 날면 능한 매라도 못 잡는다.

오직 한 일에 충성하여 목회에 실력을 다 쏟는다. 전 교회적으로 인망이 나날이 높아간다. 교회로서도 안식년을 드리되 소급하여 또 시간도 더 드린다. 그 때에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학업을 국내 혹은 국외로 지원하면 교회는 단 마음으로 그 학자금까지 드리게 된다.

그때 그 한 일에 전념하게 되어 학업도 제대로 실력 있는 학업이 쌓여진다. 이렇게 함이 원칙이다. 교회에서는 전임역군으로 일해주기를 바람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다.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학위를 위하여 공부할 조건을 제시하니 실로 예조차 갖추지 못함이다.

"오직 한 일"만 하여야 소임을 감당한다. 때로 목사들에게 선물로 "牧羊一念"(목양일념)이란 글귀를 선물하여 목양실에 거의 이런 액자가 걸려있음을 보았다.

牧羊一念이 二念이 되니 이도 저도 다 안된다. "오직 한 일"(빌3:13)에 자기 충성을 다 하였을 때는 그 원하는 학위도 실력있게 얻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일신 양역을 시도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두 가지 다 못하게 되는 소이가 된다. 이는 내 친히 지내본 일로서 젊은 역군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다.

〈1권, 1996년〉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박헌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영어예배: 오후 2:00
찬 양 예 배: 오후 3: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213)413-1600, (F)(213)383-2604
3119 West, 6th L.A., CA 90020
Tel.(213)383-2600, www.laopendoor.org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23)939-7323, (F)(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213)215-8523, Fax.(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30
주일2부 예배 : 오전 9:1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10
(Holywave:영어예배)
(KDC:한국어예배)
주일4부 예배 : 오후 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11:00
주일3부예배:오전 10:50
새 벽 기도회:오전 6:00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323)466-1234, Fax.(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 림 교 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 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새벽5:30(월-금), 6:00(토)
Tel.(626)793-0880, 0200 Fax.(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주 일 학 교: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비전Acts 1:8 새벽기도: 오전 6:30(토)
중,고,대,청년부: 오후7:30(금)
www.samsungchurch.org
Tel.(562)690-9800, Fax.(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명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ijoopeacechurch.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2:30(영어)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청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2부 대 예 배: 오전11:15
주일영어예배: 오후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새생명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한어 2부예배: 오전11:00
성 경 공 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교 육 부: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818)952-2449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오후예배: 오후 1:45
금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5:30
교육부주일예배 : 오전 11:00
Tel.(818)249-2871, Fax(818)249-0516
www.laapc.org
2720 Montrose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
(화-토)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창 대 교 회
담임목사 : 이춘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영어)
중고등부성경공부: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 요 찬 양: 오후 7:30
www.gpc.com
Tel.(909)388-2940, Fax(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dino, CA 9240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15(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 동남아가 불안하다

1. 캄보디아 총선, 여당의 불안한 승리

28일 치러진 총선결과로 캄보디아가 예사롭지 않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정부 대변인에 의하면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PP)이 123개 의석 중 과반수를 조금 넘기는 66석을 차지해 장기집권이 연장됐다. 반대세력인 삼랭시가 이끄는 캄보디아 구국당(CNRP)은 55석을 차지했다.

총선은 마쳤지만 총선을 둘러싼 캄보디아는 "부정선거" 논란이 일면서 혼란스럽다. 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한 삼랭시가 선거부정을 비롯해 그간 훈센 총리의 부정을 들춰내기 시작한다면 정국이 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실제, 선거가 있었던 28일 당일 일부 도시의 시민들은 부정선거에 항의, 소규모의 방화를 저지르며 시위를 벌였다. 선거결과가 발표된 29일, 재집권에 성공한 훈센 총리의 공관과 사택 그리고 CPP 당사로 통하는 주요 도로에는 군병력이 배치돼 반대세력의 접근 자체를 철저히 차단했다. 시민들 또한 일어날지도 모를 소요사태에 대비해 식료품과 휘발유 등 주요 물품들을 사재기했다. 현지인들은 이미 외출을 자제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단체들은 29일 오전 비상회의를 소집해 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사진: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삼랭시(왼쪽)(출처: Phnom Penh Post)

2. 총선 이후 캄보디아 기독교 선교 전망

훈센 총리는 크메르루주(캄보디아의 급진적인 좌익무장단체) 정권을 축출하고 수립한 정권에서 요직을 거친 뒤 1985년 총리직에 올랐다. 그는 뛰어난 정치적 수완과 특유의 카리스마로 캄보디아를 이끌어왔다. 실용주의 노선을 걸으며 선진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던 훈센은 1993년 이후, 캄보디아를 개방하며 국익을 위해 NGO 활동을 허용해왔다.

이를 계기로 수많은 선교사와 선교단체들이 캄보디아에 들어올 수 있었다. 사실상 훈센으로 대표되는 여당의 NGO 허용정책이 있었기에 그간의 직간접 선교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십 수 년이 지난 현재 선교사와 선교단체들의 캄보디아 체류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가능할지 불투명함을 직감하게 된다.

여당 또한 NGO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선교활동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삼랭시를 비롯, 세를 불려가는 야당연합은 기독교 선교에 배타적이기까지 하다. 얼마 전 침례교 선교사들은 종교비자를 거절당했다.

이렇듯 선교활동을 위한 체류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현지인 목회자들의 궤도이탈"에 관한 소식도 들린다. 캄보디아 교회지도자 양성의 요람이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장로교신학교를 섬기던 현지인 교수진 3명이 사직한 것이다. 사직의 실질적인 이유가 그들의 윤리·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이어서 마음이 더욱 씁쓸하다.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 "현지인 목회자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절실하다.

## 이집트

1. 혼돈 속 이집트: 비합법적인 쿠데타를 통한 군부의 합법적 등장

'아랍의 봄(Arab Spring)'이 일어난 지 거의 2년 반이 되었다. 이중 어느 한 나라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튀니지나 리비아 그리고 예멘은 여전히 혁명의 고통을 겪고 있다. 아랍권 최대 인구(8500만 명)를 가진 이집트의 혼란스러운 민주주의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했던 무르시 대통령을 일명 "쿠데타"라고 불리는 비합법적 절차로 축출하고 말았다.

아랍권의 변화를 선도하는 정치대국이자 군사대국인 이집트가 이 모양이 되자 언론은 "아랍의 봄이 실패로 끝난 것인가?"(The Arab Spring. Has it failed?)라는 질문을 내놓았다.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아랍의 봄이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한 이유로 독재자를 몰아내고 생긴 공백을 채울만한 민중의 정치적 힘이 부재했다는 것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의 화합을 이루는 구심점이 '이슬람'이라는 것을 든다. 이슬람은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무슬림들은 샤리아에 근간한 스스로의 통치를 알라가 그들에게 내려준 권리로 여긴다.

이집트의 경우, 집권 세력인 이슬람 근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욕구와 충돌하면서 '무르시 호'가 좌초됐다. 무슬림형제단은 사회통합에 실패했고 정치는 양극화됐다. 특히 경제와 관련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다시 집어서는 안되는 "군부와의 연합"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게 했다. 이집트 국민들 스스로 오랫동안 독재를 가능하게 했던 군부를 전면에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외신들은 금번 이집트 사태를 "이집트의 비극(Egypt's tragedy)"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세워진 정권이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축출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주변 아랍국들에게 미칠 영향들을 고려하면 "아랍의 봄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지적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집트 대통령궁 벽에 반정부 시위대가 그려놓은 그림(출처: AP)

2. 7월 30일 아침 이집트 주요 신문의 머리기사 요약.

-알아흐람: 타흐리르 광장과 다른 광장들은 국민들의 새로운 인티파다를 맞이할 준비완료.

-BBC Arabic: 히샘 깐딜(전임 국무총리), 이집트의 현재의 위기를 탈출할 방도를 제안.

-MSN: 이집트 군대, 무슬림형제단에게 군대 로드맵에 동참할 48시간의 유예시간을 줌.

-이집트 공영 텔레비전과 10개의 위성방송, 라마단 드라마 방영 일시 중지. 테러에 대항하는 군대를 지지하기 위해 공영 텔레비전과 10개의 위성방송은 오늘 저녁 정기 라마단 프로그램 방송을 중지하고 시위 현장을 생중계 할 예정.

-판사 협회 이사회, 무슬림형제단 성명에 서명한 75명의 판사들 제명.

-'라바아' 광장의 의사들과 돕는 사람들 체포. 라바아 광장의 장교와 경찰 고문혐의.

3. 인근 국가로 번지고 있는 반 이슬람 시위(살라피스와 살라피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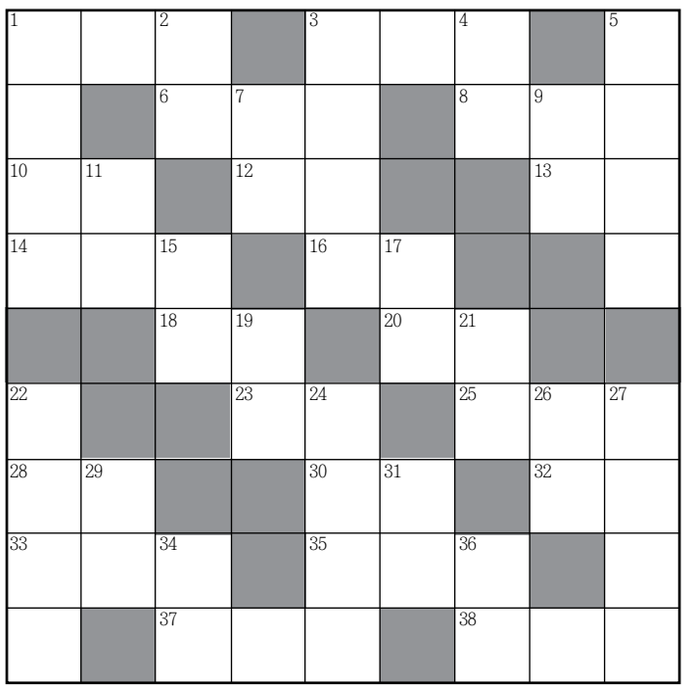
일련의 이집트 사태를 관망해오던 리비아와 튀니지에서도 과격 이슬람 세력을 견제, 공개 비판해왔던 야당 지도자들이 피살되는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이 대규모 반 이슬람 시위에 동참하는 등 이슬람 정부와 세속주의자들 간의 갈등은 인근 국가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런 야권 인사들의 잇단 암살의 배후로 이슬람 근본주의를 주장하는 살라피스트(Salafist)들이 지목받고 있다. 살라피스트는 살라피즘(Salafism)을 믿는 무슬림이다. 살라피즘은 코란의 구절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코란과 순나(전통 이슬람 규범)에 기초한, 초기 이슬람 신앙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근본주의 운동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즘(이슬람 복고주의)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살라피즘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살라피스트들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거부한다. 민주주의는 알라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살라피스트들은 이집트에서 선거참여를 통해 정권을 잡은 무슬림형제단을 비난, 분리했다. 이슬람의 또 다른 내부 분열의 모습이다. 둘째, 그들은 강력한 샤리아법과 이로 통치되는 국가를 추구한다. 살라피스트들 안에도 강경파와 지성파를 비롯해 많은 분파들이 있다. 강경한 살라피스트들은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온건한 이슬람 사원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테러활동을 전개하는 등 극단적인 양상들을 가속화하고 있다.

## 십자말 • Cross Word (5)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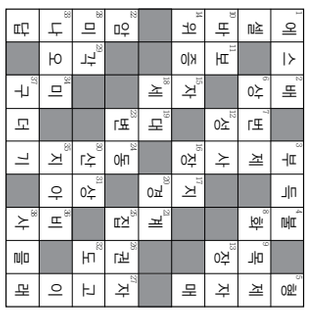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다윗의 용사 나아래의 부친이다(대상11:37).
3. 하는 수 없이. 불가불(고전9:16).
6. 제단에서 계속적으로 제물을 태우는 제사(민28:23).
8.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흠 없는 양과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태우며 정성을 드리던 제사의 한 가지(레4:10).
10. 구브로섬 서남에 있는 성이다(행13:6).
12. 일을 이룸(사48:5).
13. 맏아들(대상5:1).
14.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시27:12).
16. 죽은 자를 파묻을 땅(삿16:31).
18. 한 시대(전1:11).
20. 잘못이 없도록 미리 조심함(눅9:21).
23. 움직여서 변함(히12:27).
25. 정권을 잡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마20:25).
28. 달고 시고 짜고 쓴 맛을 느껴서 아는 감각(욥6:30).
30. 산 위(신9:10).
32.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딤전2:1).
33. 룻의 시어머니(룻1:3).
35. 남편의 옛스러운 말(겔16:32)
37. 파리의 유충(막9:48)
38. 느디님 사람의 한 조상이다(스2:46)

**<세로 푸는 열쇠>**

1.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 이용한 바위. (삼상20:19).
2.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줌(출21:19).
3. 제사장에 버금가는 사람(렘52:24).
4. 사이가 좋지 못함(마10:35).
5. 그 부모 ○○○○가 죽은 때에라도....(민6:7).
7. 자손이 늘어서 퍼짐(히6:14).
9. 말, 소, 양 등을 놓아기르는 넓은 들(대상17:7).
11.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함(잠11:15).
15. 자기나 남의 세력을 빙자하고 의지함(미4:5).
17. 땅 사이의 경계(수19:18).
19. 사람의 배설물(신23:13).
21. 여자(행12:13).
22. 유다의 5대손이다(룻4:19).
24. 동산을 지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요20:15).
26. 수단은 옳지 못하나 목적은 정도에 부합하는 처리방식(고전7:6).
27. 일과 물건의 내력에 예로부터 지금까지에(욜2:2).
29. 결심(행21:13).
31. 코끼리의 어금니(아7:4).
34. 오래 되지 않은 동안(사29:17).
36. 비유로 쓰는 말(욥27:1).

**십자말 정답**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기간 : 2013년 8월 22일(목) ~ 31일(토)
9월 2일(월) ~ 12일(목)

| 시간 : 오후 7:30, 새벽 5:30, 오전 10: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목사)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 강화 · 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

##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 6. 사모의 침실 가꾸기(3)

사모교실에서는 사모의 침실 가꾸기 시간을 갖는데 각 조마다 의견을 발표하고 문제점을 제시해 방어책을 서로 내어놓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엔 질문조차도 꺼려하고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강의만 듣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서로의 의견을 모으기를 자유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다른 나라에서도 사모교실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침실 가꾸기를 반드시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교회에 대한 문제들은 사모들끼리라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

## 목회자가정의 침실, 마귀가 틈타기 가장 쉬워
## 인격체의 만남·하나됨의 극치...적극 활용

문제만큼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사모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자신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해결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연령별로 조를 짜서 의논을 하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내어놓은 사모들의 고민을 들어보십시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는 어렵사리 이제 성에 대한 욕심은 접기로 하고 남편을 위해 헌신적인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성을 요구해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이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뜻밖에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한없이 미안해졌습니다. 두 가지를 놀란 셈입니다. 아니 그런 몸으로 어떻게 성을 요구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내 몸이 언제부터 이렇게 석녀가 되었단 말인가 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으나 이런 상황을 어느 누구에게도 문의할 수 없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성들은 몸의 기능이 잘되지 않을 때도 성욕은 발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아내도 알아야 하고 남편자신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 들 기운이 있는 남자라면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모들은 남편을 돌보는데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병에 걸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여성들은 생리가 끊어지고 몸에 액체가 줄어들면서 자연히 성욕이 줄게 됩니다. 그래도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해서 성을 즐길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의 경우 성을 이루지 못하는 환경에 닥치게 되면 아주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이때 마귀는 틈을 타고 목회자의 침실을 더럽히고 맙니다.

사람의 욕망에는 기본적인 욕망인 1차 욕구가 있고 2차 욕구가 있습니다. 1차 욕구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욕구로서 식욕, 마실욕, 배설욕 등이 있습니다. 2차 욕구로서는 근원욕, 관계욕, 소속욕, 안정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욕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1차 욕구에 넣는 학자들도 있지만 원래는 2차 욕구에 포함됩니다.

1차 욕구에 속하는 것은 그 행위자체를 하지 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욕구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욕은 채우지 못할 경우 다른 것으로 대치가 가능한 욕구입니다. 대치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문화행위가 있는데 최고의 문화행위에 속하는 것이 곧 예술이나 종교행위입니다. 예술가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예술과 함께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금지된 성에 속한 자들은 다른 예술이나 신앙의 힘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을 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부부들에게 서로에게 해야 할 책임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다 감당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부득이하게 성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예술이나 신앙의 힘으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청소년들의 성은 금지되어 있지만 예술이나 문화행위로 이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 지금의 청소년들은 이 모든 유혹을 이기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크리스천의 성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들부터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자녀들을 교육시켜 나가는데 교회가 앞장 서야 하겠습니다.

성은 인격체와 또 다른 인격체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하나됨에 극치, 하나 되었을 때의 기쁨이 최고입니다. 육체를 가진 이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습니다. 이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가 곧 부부입니다.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성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사모들을 위한 성상담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 준 뒤에는 어떻게 하면 성을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가를 교육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어야 효과가 나는 것처럼 아무리 즐거운 성이라도 누리지 못하는 성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요. 사모들 중에는 이미 개발되어 즐기며 목회현장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푸는데 사용하는 사모들이 있는데 이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에 대한 개발은 사모사역자들이 계속해서 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선 환경과 조건이 여의치 못한 사모들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갖 아이디어를 다 동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모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젊음이 지나간 뒤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은 누릴 수 있게 만들어놓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모들의 반응은 어떻게 그런 것까지 구할 수 있느냐고 아연질색 합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구하면서 왜 침실에 대한 것은 구하지 않는지요. 침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결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모들이 성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생활은 가장 밀도 높은 소통입니다. 서로가 함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 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대하15:1-9)찬17

이스라엘이 여호와 경외함을 떠나 우상숭배에 처할 때 약해져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하나님 신의 감동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사에게 성령이 임해(1) 말씀을 받아 전할 때 아사 왕이 감동받았습니다. 사람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성령은 일하셨습니다. 아사랴와 아사의 순종을 통해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아사의 경건을 통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우상제단을 헐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신앙을 거역한 태후까지 폐위시킬 정도로(16)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회와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나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힘쓸 때 거기서 진정한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참된 복입니다.

### 화 끝까지 쓰임 받는 생애(대하16:1-14)찬342

개혁의 왕 아사가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했다고하지만 말년까지 쓰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아사는 승리 후 자기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경쟁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머리를 더 신뢰했습니다(3-4). 작은 데부터 하나님의 신뢰를 배우는 자만이 승리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수단을 더 의지했습니다(12). 발병이 났을 때 하나님보다 수단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자기관리 실패의 요점입니다. 자연 혜택 곧 일반은총의 도움을 받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일반은총 속에 숨겨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신앙의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육체건강을 위한 온갖 수단들이 복음보다 앞서는 운동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 수 하나님을 구하자(대하17:1-19)찬337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한 자에게 능력 주심이 여호사밧 생애 속에 보여졌습니다(6). 어떻게 구했으며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첫째,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였습니다(마6:33). 율법을 가르칠 교사들을 급파하여 율법을 가르치고(8-9) 산당을 헐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딤후3:16-17). 그래서 성경공부에 힘쓰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둘째, 그에게 네 가지 은혜가 따랐습니다. 1)그의 속사람이 강해졌습니다(1). 2)원수들이 두려워했습니다(11). 3)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14-15). 4)그의 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18:1). 노란 자위의 복인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신자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 은혜에 거하기 위해 성경의 세계로 속히 달려갑시다(계1:3).

### 목 미가야 선지가 그립다(대하18:12-27)찬421

하나님은 자기백성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 그 뜻을 나타내십니다. 아사시대에 아사랴와 하나니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어두운 시대에 미가야를 세워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합의 욕심에 끌려 여호사밧이 전쟁 출전여부를 구할 때 거짓선지자 400인은 승리하리라고 했으나 미가야만은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귀에 거스리는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때문에 박해를 당했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23-27).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마5:10-12).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선지자를 필요로 하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십자가를 질줄 아는 미가야의 정조 있는 신앙이 그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할 때 진정한 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

### 금 신실하신 하나님(대하23:1-15)찬462

아달랴의 잔인한 행동으로 다윗왕가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불의한 그녀가 왕이 되려고 왕이 죽자 왕자들을 모두 죽이는 위급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려두심으로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점에 신실하셨습니까? 첫째,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을 사용하셨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순간에 요시야를 피신시킨 그는 훗날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위대한 역사 뒤에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우연한 일처럼 보인 것에도 하나님의 손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구속역사의 맥을 끊으려는 사탄의 장난이 성난 사자처럼 날뛰어도 하나님의 지혜의 신실성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탄생 직후에도 헤롯을 통해 같은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구원역사를 완성하는 이 마지막 때 더 극심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를 붙드십니다.

### 토 진정한 개혁(대하23:16-24:3)찬378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영적성장과 교회의 개혁을 위해 숨은 일꾼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개혁했습니까? 첫째, 언약의 갱신을 일으켰습니다(3-5). 첫 언약을 회상하며 그 언약의 골자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원리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신자갱신, 교회부흥, 사회개혁은 모두 이 기본원리에서 나와야합니다. 둘째, 예배갱신을 일으켰습니다(17). 산당을 훼파하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부자, 부부, 군신 관계의 언약은 공적예배 속에서 표현됐습니다. 예배가 병들면 언약이 파기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잘 배워 그대로 해야 합니다. 셋째, 삶의 갱신이 일어났습니다(18-20)/ 생활 속에 경외신앙은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호야다의 3대 개혁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주께 쓰임 받는 가정이 됩시다.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Tel.(062)523-9419, Fax.(062)522-4834
500-170 광고광역시 북구 운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03)3208-8491~5, Fax.(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82)2-440-9000, Fax.(9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02)2645-6567~9, Fax.(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22-3 (158-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82)51-740-4500, 4556~8, Fax.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 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13)

– 유 경 옥 전도사 (화가,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 E. 예루살렘 지역

E-15. 감람산(Hill of Olive): 승천당(Dome of Asension)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의 기드론 계곡과 그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4개의 봉우리를 갖고 있는 산이다. 제일 높은 봉우리가 830m 정도. 그래도 마주보고 있는 성전산보다 90m 정도 높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던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름을 따라 올리브가 산 전체를 뒤덮었으리라는 설이 많다.

정상에 오르면 팔각형의 탑 같은 교회가 있다. 그 위 지붕은 원래는 387년 로마 귀부인 포에메니아가 지었을 때나 십자군시대 때 재건될 때도 '승천'에 맞게 천장이 없는 예수님승천기념교회였으나, 1187년 살라딘의 침공이후 회교사원이 되면서 돔으로 덮었고 이름도 교회 대신 돔(Dome)을 쓰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돔이란 지붕 모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회교사원'이란 뜻으로 현재도 이슬람이 관리하고 있다.

승천교회

팔각의 면마다 아치문이 있었으나 그것도 다 벽돌로 메워지고 한 곳으로만 통행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승천기념일에는 기독교 각 파에서 기념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안에는 들어가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커다란 발자국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한다. 성전산의 마호멧이 승천했다는 바위인 'Dome of the Rock'과 경쟁하자는 것은 아니겠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천주교에서 신비롭게 만드는 바람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승천사건을 오히려 미신처럼 만들어버린 것 같아 속상했다.

누가복음 24:5—51엔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곳이 무척 가깝긴 하나 감람산이 그 때도 워낙 잘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혼돈될 리는 없다. 어찌된 것일까. 언젠가 누군가 기독교에서 제대로 된 곳을 다시 다 정립할 날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도 그 때 그 한 갈릴리 사람으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나는 증인이다".

E-16. 벳바게(Bethphage)

'무화과 집'이란 뜻에서 히브리어 발음으로 phage를 fah-gay로 하기 때문에 벳바게가 된다. 감람산 옆에 있는 동네이름인데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의 롱아일랜드에는 베스페이지란 이름의 동네와 같은 이름의 유명한 골프장이 있다. 같은 무화과 열매라도 이 phage는 이른 봄철에만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 익은 것은 헬라어로 sukon이라하니 마가복음 11:12-14에서 예수님께서 철이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은 보통의 다 익은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무성한 잎사귀 사이로 적어도 달려있어야 할 초봄의 무화과 열매인 phage가 없었기에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없는 자를 꾸짖으신 것이리라. 주님은 나지도 않는 무화과를 찾다가 없다고 화나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매년 종려주일이 되면 베다니에서 떠나 벳바게에서 나귀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는 예식을 지금도 천주교와 그리스정교회에서는 한다고 한다.

E-17. 주기도문 교회(Pater Noster)

라틴어로 Pater Noster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뜻이다. 통칭 주기도문 서두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의미다.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 헬레나가 지은 또 하나의 교회로서 지을 당시의 이름이다. 614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파괴되고 1009년 십자군에 의해 재건되었으나 다시 회교도에 의해 파괴됐다가 1874년 프랑스의 투르 오베르뉴백작 부인의 후원으로 재건됐다. 현재는 외부 출입이 제한되고 수녀원 안에서만 평생 산다는 갈멜수녀원이 관리하고 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9-13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으므로 우리는 주(의) 기도라 하고 그것을 글로 써서 찬송가 표지 안쪽 속장에 써넣고 항상 외우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도가 없는 예배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주기도'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 하는 것이 무난하리라 본다.

베드로 부인교회에 있는 수탉

여기서도 110개국 언어로 타일에 써서 벽에 붙였고 한글도 있다. 모두 외벽에 있는 기도문 앞에서 주기도를 외울 때 더욱 감회가 깊었다.

외부출입이 금지된 수녀들이 자식처럼 가꿔서 그런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지하 동굴과는 달리 프랑스식의 바깥 건물 회랑의 아치와 천장이 유독 운치가 있었다. 마당에는 마치 벨벳 같은 질감의 붉은 장미꽃도 소담스러웠고 여러 종류의 꽃들이 곱게 피어 만국어처럼 주기도를 저마다 외우는 듯했다. 천주교에서 보낸 주기도문은 바깥벽에(Coreen), 기독교에서 보낸 것은 안쪽에(Korean) 있다.

E-18. 눈물교회(The Lord Wept, Dominus Flevit)

누가복음 19:41-44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신 곳을 기념하여 지은 성당이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문득 우신 예수님이 대조된다. 흰색의 암탉이 몇몇 병아리와 알에서 깨어난 듯 한 어린 병아리까지 품기 위해 양 날개를 활짝 펴고 품으로 모으는 장면의 모자이크가 눈에 띈다. 왠지 베드로의 통곡교회(부인교회)에서의 까만 수탉이 연상된다. 1518년부터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됐지만 1881년부터 프란시스칸 수도회가 성당과 기도원을 세워 관리하고 있다.

'도미누스 플레비트'란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라틴어다. 지붕 끝에는 눈물을 담아놓는 꽃병 모양의 항아리가 있어 흥미롭다. 그렇지 않으면 분간하기가 쉽지 않고 기억도 희미할 수 있는데….

E-17. 겟세마네 교회(The church of the All Nations, The Basilica of the Agony)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셨을 때, 주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등 자주 기도하러 오셨던 친숙한 이 산… 주님의 '잔에 관한 기도'… 주님의 따듯한 마음….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인간구원의 이루심에 대한 순종과 신성의 기도만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떠나야하는 아픈 인성의 기도….

친한 이들과 조국과 떨어지는 것까지도 가슴 아파하신 정이 많으신 주님의 또 다른 면과 마주하게 하는 겟세마네(The Garden of Gethsemane)…. 주님과 독대하고 싶은 마음은 일행들을 좇느라 미련만 남겼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부조

겟세마네(아랍어로 '기름 짜는 틀'의 뜻) 동산은 감람산 남서쪽에 있는 작은 동산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아무 값없이 받은 선물로서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선 엄청난 대가를 치루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값이 돼주셨으니 어찌 감사와 사명감당의 재다짐을 하지 않겠는가.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 가겠네…." 찬송가 가사가 떠오른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70년 8만 명을 이끈 디도장군에 의해 멸망당할 때 산에 불도 지르고 나무도 많이 베었다한다. 379년부터 5년에 걸쳐 지은 교회가 614년 페르시아에 의해 파괴됐고 다시 십자군이 재건했지만 또다시 파괴됐으나(고통의교회) 일부 남은 벽면을 이용해 건축됐다. 엔케렘에 마리아방문교회 등 이스라엘에 많은 천주교성당을 설계한 안토니오 바루치

만국교회

(Antonio Barluzzi)의 설계로 1919년부터 1924년까지 16개국의 헌금을 받아 로마가톨릭에서 지어 '만국교회'라고도 한다. 다른 성당처럼 천장을 밝게 하지 않고 어두운 청색으로 했는데 잡히시던 목요일 밤을 나타내고자 했다 한다. 짙은 천장 가장자리에 스크래치 기법으로 긁은 듯 가시나무 가지들을 그려 넣은 것이 단순하면서도 현대감각이 있어서 다른 아이콘과 달리 나의 마음을 울렸다.

제단 뒤쪽 앱스에는 성경을 따라서(눅22:43-44, 요18:1-11, 마26:50) 각각 세 개의 벽화가 있는데 그중 세 번째로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신호하여 잡히시게 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멀리서 옆 지붕을 보면 풀호빵 틀같이 제자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돔이 붙어있고 지붕 정면에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워하시는 대형 모자이크가 잘 보인다.

지하에는 예수님 당시의 풍습대로 석재의 납골함(ossuary)이 여러 개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동굴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장사법을 쓰지만 사후 1년 후 뼈만 남게 되면 추려서 가장 긴 대퇴골이 들어갈 만한 작은 함에 담아두기 때문이다. 요즘 한국에서는 전기로 화장한 후 그 자리에서 뼈를 추려 유족들에게 유리를 통해 보여주고 이를 다시 옆에서 분쇄해 몇 분 후 항아리에 담는 것이 장례예식의 하나인데 충격적이다.

정원으로 둘러놓은 곳에는 가운데는 노란색인 주황색 장미를 비롯해 2000년이 넘었다는 종려나무가 8-12주 있었다(붙어있는 것도 있어 세기가 어중간했다). 종려나무는 수명이 5-6백년 길어야 천년이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소리도 들었을 나무일 텐데. 더욱이 이 교회가 바로 그 자리라면 바로 그 근처에서 같이 기도를 못하고 잠을 자던 제자들의 코고는 소리라도 들었을 법, "잠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느냐"는 주님의 안타까움을 나무라도 알아줬을까. 바위에 몸을 덮듯이 기대신채 엎드려서 두 팔을 고개 숙인 머리위로 올려 잡으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의 부조가 눈에 어른거린다.

E-mail: sookokart@gmail.com

〈다음호에 계속〉


fh KAFHI

# 미주기아대책(KAFHI)은 영적, 육체적 굶주림이 공존하는 지역에 선교사(Hunger Corps, 기아봉사단)를 파송합니다

2003년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KAFHI/미주기아대책)는 설립과 동시에 첫 선교사, 백신종 선교사 가족을Seed 선교회와 함께 가난한 불교의 나라, 캄보디아 깜뽕잠에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깜뽕잠은 수도 프놈펜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입니다. 10년전 캄보디아는 왕당파와 수상파의 내전 말미라서 치안은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하물며 수도 프놈펜에서 조차 한인선교사님이 선교비를 찾아 나오다가 망치로 머리를 맞고 노상강도를 당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가족은 겨울 돌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깜뽕잠에 들어가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역은 메콩강 한 복판, 꼬소돈 섬에 거주하며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건축하고, 아이들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헤메고 있는 고아와 에이즈 고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편지에 중보기도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워싱톤에 있는 한 교회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아원을 짓고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고…그렇게 별빛고아원이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생겼습니다.

본부에서 지난 2012년 겨울에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과 주일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려 하는데 아이들이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툭툭기(오토바이를 개조한 탈것)를 타고 한 시간 가량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그곳은 메콩강 한 가운데 있는 고무농장의 노동자 집단거주지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열고 찬양과 율동, 성경암송, 놀이, 간식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인데… 이제 겨우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인데… 그냥 주일 오후에 개인적인 자유를 누려도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자신들 보다 더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이 복음을 듣고 변화한 아이들이 남길 간증을 상상해 봅니다. "나의 어린 시절에 우리 마을엔 수염이 덥수룩한 한 아저씨가 찾아왔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 아무 희망없이 살던 우리에게 그분이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는 희망과 기쁨이 되었다. 우리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린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었던 거다. 거저 받았으니 거져 준거란다."

한 선교사님 가정의 헌신이 다음 선교사에게로, 또 고아원 아이들에게로, 그리고 다시 고무농장의 빈민 어린이에게로 흘러가며 변화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강조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뭍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파송된 KAFHI의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의 영적 육체적 굶주림의 종식을 위해 복음과 빵을 전하고 있습니다.

KAFHI는 선교훈련원을 통해 단기선교훈련 및 파송, 중 장기 선교사를 훈련 파송하는 NGO선교기구입니다. (선교훈련원장 백신종 선교사)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KAFHI)**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www.fh.org, kafhi@fh.org, shchung@fh.org, 847-296-4555, 703-473-4696

명예이사장 및 설립자 이원상 목사
이 사 장 배현찬 목사 부이사장 이종관 목사 노진준 목사 이순근 목사 최훈석 집사
이 사 권석찬 김광태 김세웅 김승의 노승환 신구용 신진웅 안인권 이계준 이병완 이애실 이영섭 이현혜 임철성 장원일 장재옥 정세훈 조용수 진용태 차기영 홍선희
회 장 김형균 목사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 훈련원장 백신종 선교사 CFCT 간사 김은실 이 에스더 코디네이터 노희준 장로 신구용 장로

국제기아대책기구로 알려진 FHI는 Food for the Hungry 의 한글번역입니다. Food for the Hungry는 설립자 래리워드 박사가 성경 시편 146:7, "food to the hungry" 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입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FHI)의 미국 및 국제적 영문명칭은 Food for the Hungry/FHI 이며 다른 영문 명칭은 국제기아대책과 관련이 없습니다.